문화역사지리 제36권 제1호(2024) 60-89
http://dx.doi.org/10.29349/JCHG.2024.36.1.60

조선시대 궁궐 별원(別苑) 함춘원(含春苑)[1]의 성립과 전개

The Origin and The Development of an Outer Royal Garden "Hamchunwon" during the Joseon Dynasty

정우진(Woo-Jin Jung)* · 소현수(Hyun-Su So)**

요약: 조선시대 궁궐 별원은 대내후원(大內後苑)과 대별되는 궁궐 밖의 원유(苑囿)로서, 궁장과 인접한 동산에 담장을 둘러쌓아 외인들의 출입과 조망을 통제한 금원으로 정의된다. 별원의 제도는 성종 때 창경궁 밖 언덕에 담장을 두르고 함춘원이라 했던 것을 시초로 하며, 비슷한 시기 창덕궁 서쪽 궁장 밖에도 상림원으로 명명된 별원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해군 때에는 경덕궁이 창건되면서 개양문 밖 언덕에 함춘원이라는 별원이 새롭게 조성되었는데, 이는 선행 별원의 제도를 전범으로 삼아 만들어진 것이었다. 별원은 궁궐의 풍수적 국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형이었기에 금역으로 각별히 관리되었다. 별원이 조성된 뒤로는 담장 안의 공터가 생산지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녹음수와 유실수 등으로 이루어진 수림이 조성되어 왕실에 소요되는 과실이 충당되기도 했다. 문헌사료에 나타난 궁궐 별원의 이름은 함춘원이 다수를 차지하며, 상림원, 서원, 방림원 등 같은 이명들도 발견된다. 이중 함춘원은 개별 별원명으로 사용되었으나 18세기 중반부터 도성 별원 전체를 통칭하는 보편적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주요어:** 궁궐 후원, 상림원, 경모궁, 외원, 경운궁

Abstract: The outer royal palace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a royal garden outside the palace, which is defined as one that which controlled entry and view of the people outside given the walls built to surround the hills adjacent to the palace walls. The outer royal garden system began with a wall outside of Changgyeonggung Palace, which was called "Hamchunwon (含春苑)"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and around the same time, it was estimated that another was installed and named "Sangrinwon (上林苑)" outside of the palace walls to the east of Changdeokgung Palace. During the time of Gwanghaegun (光海君), when Gyeongdeokgung Palace was built, a new outer royal garden called "Hamchunwon" was formed on the hill outside of Gaeyangmun Gate (開陽門), which was classically modeled after the previously executed outer royal garden system. Since the outer royal garden was of a topography which directly affected the feng shui related aspects of the palace, it was especially managed as a prohibited area. After the outer royal garden was built, the vacant land within the wall took on the role of a production area, and a forest made of shade and fruit trees, etc., was created to provide timber and fruits for the royal families. Hamchunwon accounts for the vast majority of the names of the outer royal gardens emerging across historical documents, while other names emerged including Sangrimwon, "Seowon (西苑)", and "Bangrimwon (芳林院)". Among which, Hamchunwon was used as a name of each individual outer royal garden, yet since the mid-18th century, it has been used as a universal name for the outer royal garden of the entire capital city. **Key words:** Gyeongmogung Royal Shrine, Gyeongungung Palace, outer garden of a palace, palace rear garden, Sanglimwon Royal Garden

1. 서론

조선시대 궁궐의 별원은 대내에 위치한 내원(內苑)과 대별되는 궁원의 유형으로, 즉, 대내후원(大內後苑)과 대별되는 궁궐 밖 동산에 담장을 둘러쌓아 외인들의 출입과 조망을 통제한 금원으로 정의된다(정우진 등 2022). 조선

* 상명대학교 한중문화정보연구소 연구원(Researcher, Korea-China Cultural Research of Sangmyung University, renewing100@naver.com)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hsso@uos.ac.kr)

시대 궁궐에는 예외 없이 궁장 밖 언덕에 영외 원유(苑囿)가 독립된 형태로 존재했다. 조선시대 최초의 궁궐 별원으로 여겨지는 창경궁 함춘원은 성종 연간 창경궁 건립 직후 외간의 구경을 차단하고자 궁장 밖 구릉지에 나무를 심고 담장을 설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 뒤로 창덕궁 서측 언덕에도 담장을 둘러쌓고 상림원(上林苑)이라 하였으며, 광해군 때 경덕궁이 창건되자 개양문 밖 언덕 위에 그와 같이 담장을 설치하여 함춘원으로 명명하였다. 사료에서 창경궁, 창덕궁, 경희궁의 별원은 15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궁궐 별원은 국초 궁궐의 창건 시기에 고려된 계획개념은 아니었고, 궁궐의 운영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궁원의 형식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궁 밖에 담장으로 둘러친 금원을 조성하는 이 같은 구성 방법은 1868년 경복궁이 중건된 직후 진장방 신경현 곧, 지금의 정독도서관이 있는 동산에 담장을 쌓고 '함춘원'으로 명명한 것에서도 발견된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법궁을 포함한 모든 궁궐에 별원이 설치된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함춘원', '상림원' 등으로 명명된 궁원의 개념과 형식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정형화된 제도로 성립되어 있었음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조선시대에 법궁을 비롯한 모든 궁궐에 별원이 부속된 사실에서 보편적인 그리고 규범화된 '별원 제도'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별원을 제도적 산물로 본 시각은 '궁궐의 부속 동산', '금제(禁制)로 규정된 궁궐임압(宮闕臨壓)의 동산'으로 함춘원을 규정한 김원모(1964)의 시론적인 논의에서 비롯되었다. 이 논문에 기술된 함춘원의 정의는 "궁궐에 인접해 있는 산으로 이곳에 민가의 조립(造立)과 잡인의 등망(登望)을 금하고 수림을 양식(養植)하여 주원(周垣)을 둘러 보호하는 원유지대"이다. 그러면서 『한경지략』과 『동국여지비고』의 기록에 의거하여 창경궁 동쪽, 창덕궁 서쪽, 경희궁 남쪽의 소산(小山)에 모두 궁궐의 부속 동산으로 조설된 함춘원이 있었다고 하여 궁궐마다 하나의 함춘원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았다.[2] 상기 연구의 논의 범위가 창경궁 함춘원에 국한되었다면, 오준영(2019)은 모든 한양 궁궐을 대상으로 '외원(外苑)'의 다중적 설치 양상과 운영 특징을 논구하였다. 이 연구는 방대한 실증자료를 통해 외원의 역사와 개념을 정립하면서, 외원을 "내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왕실의 거주환경을 보완하는 것", "궁궐의 영역이 궁성 밖까지 확대된 것"으로 정의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궁 안팎으로 금원의 위상을 가진 내원과 외원이 존재했던 현상을 '금원의 이원화'로 보고, '1궁(宮) 2원(苑)'이라는 금원의 운영체계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조선에서만 나타나는 독자적 조경문화로 평가한 점이다. 나아가 외원이 도시의 보전녹지로 관리되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었다는 등 주목되는 논점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성과는 향후 후원 일변의 궁원 이론 체계를 확장시키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이제까지 조명받지 못했던 궁 밖의 금원 곧, 별원의 실체가 일정한 보편성을 갖고 존속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별원이 대내 후원과 마찬가지로 금원의 속성을 가졌더라도 후원의 기능이 궁 밖으로 확장된 장소가 아니었다는 점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실제 문헌사료에서 살필 수 있는 별원의 성격은 궁궐 후원이 담당한 정치적 역할이나 유락의 기능과는 무관했다. 또한 별원이 궁궐의 존폐와 위상 변화에 상응하여 부침을 겪었던 다양한 사례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그리고 궁궐과의 상호 관련성이 유지될 때만 의미를 가지는 종속적 특징을 가졌음을 시사한다.[3] 따라서 이러한 속성을 간과한 채 별원을 궁궐 내의 후원과 동렬의 위계로 설정하고 전통적인 '원유'개념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이해가 간편하겠지만 지나치게 도식화된 개념으로 설명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궁의 건설과 동반하여 성립된 '함춘원 제도'의 본질적 성격을 재검토하고 그것의 내적·외적 특징이 시대별로 변천했던 역사적 궤적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궁궐 별원이 궁궐과의 상호 관련성을 전제로 유지된 궁원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조선시대 제 궁궐 함춘원의 조성 사실, 목적, 외형 변화 등 별원의 이론화에 일차적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와 더불어 여러 이명(異名)으로 표상된 별원의 시대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관점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고의 논의 대상은 궁궐 별원의 위상으로 실재했던 4개소의 함춘원 및 상림원이다(그림 1). 지금 대중의 인식에서 함춘원은 창경궁 앞에 있었던 왕실의 동산 내지는 경모궁에 속한 정원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게다가 모든 유적이 현존하지 않고 일제강점기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과거의 영역이 변용과 교란을 거듭하였기에 창덕궁이나 경희궁에도 창경궁 함춘원과 동일한 성격의 궁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사료와 고지도에서 궁장과 인접한 산지에 설치된 궁원이 여러 이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혼란을 준다. 성종 연간 창경궁의 건설 직후 동쪽 궁장의 맞은편 구릉지에 함춘원이 조성되었고, 창덕궁 서쪽, 경덕궁 남쪽 언덕에 각각 상림원, 함춘원 등으로 불린 궁원들이 생겨났지만, 이후로 다른 명칭들로 지시된 기록이 다수 발견된다. 이러한 복수의 궁원명 출현과 더불어, 특히 19세기 중반 모든 궁 밖 궁원의 명칭이 '함춘원' 하나로 통일되었던 양상도 나타난다. 즉, 이 시기 개별 원유의 이름으로서의 함춘원과 궁원 제도로서의 함춘원이 동시에 사용되었던 것인데, 본 연구는 논의의 서두에 조선시대 궁궐 별원의 명명 양상을 분석하여 명칭의 혼용 문제를 정리할 것이다.

둘째, 궁궐 별원의 연혁과 운영에 관한 기록은 문헌사료에서 수집·분석되었다. 별원은 왕실의 기간시설이었으므로『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등의 관찬사료에서 관련 기록이 산견되며, 문집, 의궤, 지리지 등에서도 별원에 관한 단편적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분석된 원문 및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 아카이브(https://www.gogung.go.kr/royalCultureBookIllust.do) 등에서 추출된 것으로서, 오역의 검토를 거친 번역문을 게재하였다.

셋째, 별원의 역할과 기능 세 가지는 (1)조망 통제, (2)지형의 보호, (3)녹화와 생산림 조성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 맥락을 잡았다. 문헌사료에서 별원은 궁 내부를 차폐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설치되거나 궁궐을 둘러싼 풍수상의 지형을 보호하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여기서 별원의 외형적 특징은 미관을 조성하는 것보다, 대내의 조망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지점에 사람 키보다 높은 담장을 쌓아 금역을 정하고 지기(地氣)를 배양하는 숲을 조성하는 등 단조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별원이 조성된 뒤로는, 시선의 차폐와 출입의 통제라는 기본적인 요구조건에 부가하여 내부 공간의 활용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궁궐과 인접한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의 기능

그림 1. 조선시대 궁궐 별원의 연혁 및 존속 기간

이 중시되어 유실수 등이 식재된 것인데, 본고는 금역으로 조성된 별원에 실용적 기능이 부가되었던 양상을 아울러 살펴볼 것이다.

넷째, 궁궐 별원의 외적 형태를 추적하기 위해 다수의 고지도, 사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고지도의 경우 『정도 600년 서울 지도』(1994), 『옛 서울 지도』(2016) 등의 지도집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서울역사박물관(https://museum.seoul.go.kr) 등 소장처의 온라인 제공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인용된 고지도에는 도식적 표현이긴 하나 시대성이 반영된 궁궐 별원의 특징적인 형태가 나타나며, 그러한 형태와 명칭 변화를 통해서 공간 변천은 물론 별원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를 읽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작 시기가 다른 충분한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유의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20여 종의 지도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2) 주제 용어 '별원'의 타당성 검토

본 연구는 궁궐 밖 언덕에 설치된 궁원의 이름을 '별원'으로 규정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용어는 '외원(外苑)'이었다. 이 연구는 "내원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외원이 고려될 수 있고, 함춘원, 방림원, 상림원을 통칭할 수 있는 용어로 외원이 적절하다(오준영 2019, 2)"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헌사료에는 궁장 밖의 금원을 직접 '외원'으로 명명하지 않고, '함춘원', '상림원' 등 개별 원유의 이름을 호명했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때의 함춘원과 상림원은 구체적인 장소로 지목된 실물 원유이기도 했지만, '제도화된 궁원의 유형'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전기 문신 신광한(申光漢, 1484-1555)의 시 「함춘원(含春苑)」에 나온 '별원'이란 용어에 주목하였다. 시의 첫 구는 "푸르고 무성한 별원의 호칭이 '함춘'이다[蔥蘢別苑號含春]"라고 하여, 시상이 전개되는 장소가 울창한 녹음으로 이루어진 함춘원임을 밝히고 있다.[4] 중종에서 명종 연간에 조정의 요직을 두루 거쳤던 신광한의 활동 시기를 고려해 본다면, 그가 묘사한 함춘원은 창경궁 함춘원을 가리킨 것이 분명하다. 이 시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함춘원이 구체적으로 '별원(別苑)'의 공간 형식으로 규정된 점이다. '별(別)'의 사전적 의미를 적용해 본다면, 별원은 '대내의 후원과 구별되는 동떨어진 궁원' 또는 '궁궐에 부속된 궐 밖의 원유'로 풀이된다. 비슷한 예로, 궁궐 밖에서 생활하는 왕실 구성원의 집이나 궐 밖에 세운 왕실의 사묘는 통상 별궁(別宮)으로 불렸다. 별전(別殿)의 경우도 유사한데, 궁궐 본체에서 이탈한 왕실의 공간에는 '別'자의 전부지명소를 붙이는 것이 상례였다. 또한 민간에서도 본댁에서 떨어진 인접한 경승지나 전원지에 학문 수양 등의 목적을 위해 조성한 제2의 주택을 별서(別墅), 별업(別業), 별장(別莊)이라 했던 '別'의 용례를 살피더라도(한국전통조경학회 2016, 260), 별원은 '본체[궁궐]와 이격되어 설치된 궁원'이라는 속성을 적합하게 전달해 주는 이름으로 판단된다.

다만 별원이 전례(前例)의 상용적인 표현 방식을 담지하는 개념어로 본다고 해도, 신광한의 시문을 제외한 다른 용례가 발견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내원'과 '외원'의 용어로써 궁원의 제도적 틀을 설명하였으므로, 기설정된 명칭을 따르는 것이 학적 혼란을 피해 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며, 내외로 궁원을 구분하는 방법이 간편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외원이 이러한 궁원 형식의 표면적인 개념과 의미속성에 정합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원적 체계로 내원과 별원을 구분한 것만으로도 괄목되는 논점을 제시해 준 것이며 의미가 소통된다고 보나, 함춘원은 어디까지나 본궐에 부속된 그리고 종속적 성격이 두드러진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와 역할을 반영하는 용어는 외원보다는 별원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같은 궁원이라도 대내의 후원과 별원은 위계와 주종의 차이가 엄연히 구별되는 장소였다. 게다가 함춘원은 원유에서 기대되는 전형적 형상 즉, 임금이 나들이하여 유락의 행위를 즐기거나 대사(臺榭)와 연지를 조성하는 등 경관 미화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유교 문화의 사유가 투영된 고도의 인문경관의 함의와도 무관한 곳이었다. 함춘원이 궁 안의 차폐 등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설치된 공간인 것을 상기해 본다면, 경중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동렬적' 원유체계와 그러한 '명칭'은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가령 대내후원과 별원을 궁원의 이원적 관계로 설정해 본다면, 대내의 원유는 제1의 후원이 되며, 궁 밖의 원유는 제2의 후원 또는 부원(副苑)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궁궐 안팎의 위치 구분으로 내원과 외원의 관계를 설정한다거나, 내원의 확대된 공간 개념으로 외원의 개념을 이해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함춘원은 이원적 성질의 병설(竝設)보다는 부설(附設)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별원'이 그러한 의미를 온전히 전달해 주는 용어로 판단된다. 그렇게 본다면, 주원(主苑)인 후원과 궁궐 밖 별원으로 구성된 양원(兩苑) 체계의 틀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소론은 함춘원을 '별원'으로 규정한 신광한의 기록과 오랫동안 부설 궁원으로 운영된 함춘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궁장 밖 언덕 위 궁원의 명칭을 '별원'으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3. 궁궐 별원의 명명 양상

문헌사료에 나타난 궁궐 별원의 명칭은 함춘원이 다수를 차지하며 복수의 장소에 동일한 '함춘원' 지명으로 기록된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최초의 별원으로 추정되는 창경궁 함춘원의 전례에 의해 그 명칭을 '함춘원'으로 설정한 것들이므로, 보편과 개별의 사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이름이 함춘원으로 유지된 창경궁 별원을 제외하고, 창덕궁과 경희궁의 별원은 '상림원', '서원', 방림원' 등의 이명이 존재했다. 현재 각 명칭과 대응되는 장소에서 가시적인 족적을 찾기 어렵기도 하지만 개별 별원의 명칭이 시대에 따라 일치하지 않았던 현상은 창경궁 함춘원 이후 독특한 궁궐의 공간문화로 정립된 별원 제도를 간과하게 했던 이유로 지적된다. 별원의 기억과 흔적이 사라진 지금의 상황에서 이를 고찰하기 쉽지 않으나, 문헌과 고지도의 기록을 통해 각 궁궐 별원의 명명 양상을 추적해 볼 수 있다.

1) 상림원(上林苑)

주지하듯, 상림원은 조선시대에 궁궐 후원의 이름으로 자주 거론된 명칭이다.[5] 『조선왕조실록』에는 임진왜란 이전 경복궁과 창덕궁의 후원을 '상림', '상림원', '상원'으로 불렀던 사례가 빈번히 나타난다. 이때의 상림원은 후원, 금원, 북원, 내원 등과 함께 취사가 가능한 별칭으로 사용되었을 뿐 궁궐 후원을 지칭하는 공식 명칭은 아니었다. 조선 초 왕실에서 일컬어진 상림원은 장원서 이전에 궁원을 관리하는 관서명이었다. 이는 태종 3년에 동산색(東山色)을 상림원(上林園)으로 고쳤다는 기록에서 직접적인 용례가 포착되며,[6] "상림원(上林園)은 바로 대궐 안의 관사(官司)이다"라는 문종 때의 정의에서도 일단을 알 수 있다.[7] 동시에 상림원이 후원의 장소명으로 지시된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예컨대 공작을 상림원에서 기르라고 명했다거나,[8] 평안도에서 검은 여우[黑狐]를 잡아서 바치니 상림원에서 이를 기르라고 했던 기록[9] 등은 조선 초에 관서명과 장소명이 혼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그러나 후원을 관리하는 부서인 상림원은 세조 12년에 장원서(掌苑署)로 이름을 고침으로써[10] 관서명으로서의 용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 상림원은 임금이 전유하는 금원의 고전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창덕궁 서쪽 금호문 밖의 별원은 조성 당시부터 '상림원'으로 명명되었다. 후원의 이름과 더불어 궁궐 밖의 별원이 상림원으로 불리게 된 것인데, 이는 명칭을 통해 금원의 성격을 전달하려 했던 의도로 여겨진다. 별원의 통상적 역할이 담장으로 가로막아 민간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임을 고려해 본다면, '상림원'이란 이름을 통해 왕실 소유의 금역을 나타냈거나, 궁궐을 길지로 만드는 핵심적 지형이라는 풍수적 인식이 표현된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궐내의 후원과 궁 밖의 별원이 상림원이라는 이름을 공유하게 된 뒤로, 상림원은 함춘원과 더불어 보편적인 별원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다수의 도성도에서 경희궁 별원이 상림원으로 표기된 것도 별원이 곧 '상림원과 같은 금원'이라는 관습적 인식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창덕궁의 별원명을 상림원으로 부른 사례는 영조 때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영조는 창덕궁 금호문 밖의 별원을 상림원이라 부름으로써 창경궁 함춘원과 구분하였고 모두 금원의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승정

원일기』 영조 1년(1732)의 기록에는 “금호문(金虎門) 바깥이 바로 상림원이다”라고 하여 상림원이 창덕궁 서쪽 언덕 지금의 종로구 원서동 일대에 위치했음을 분명히 해주었다.[11] 특히 ‘동유함춘(東有含春), 서유상림(西有上林)’으로 묘사된 금원이 모두 궐 안을 내려다보는 곳이라는 설명은 창덕궁과 창경궁이 한 덩어리로 긴속되어 있어 동서로 별원이 배치된 상황이 드러나 있다.

> 동쪽에는 함춘원이 있고, 서쪽에는 상림원이 있으니[東有含春, 西有上林] 이는 모두 궐 안을 내려다보는 곳이다. 그러므로 자고로 담장을 쌓고, 동산을 만드는 것은 비록 궐 안은 아니지만 모두 금원과 같다. (『승정원일기』 영조 8년 5월 17일, 한국고전종합DB)

2) 서원(西苑)

창덕궁 상림원은 한때 ‘서원(西苑)’으로 기록되었다. 후술하겠지만, 『효종실록』 8년(1657) 2월 16일과 18일 기사에는 창덕궁 경추문 밖에 별원을 조성하는 공사를 두고 ‘서원의 축조공사[西苑之築]’, ‘외원의 축조공사[外苑之築]’, ‘서쪽 담장의 공사[西墻之役]’, ‘궁원을 크게 건축하는[大築宮苑]’ 공사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공사의 내용은 장렬왕후가 기거할 만수전을 건립하면서, 전내(殿內)가 외부에 노출된 지점인 창덕궁 서장(西墻) 밖 산등성이에 담벼락을 축조하는 것이었다. 이때 지목된 ‘서원’, ‘외원’, ‘서장’의 장소명은 창덕궁 상림원을 지시했던 명칭으로 보인다. 이 공사를 기록한 『창덕궁만수전수리도감의궤(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에는 외축장소(外築墻所)의 작업소 내역으로 “옛 상림원이 대비전을 압림(壓臨)하므로 600칸의 토담과 1칸의 문간을 기존 재료를 활용하여 축조한다[舊上林苑壓臨殿內 故土築周迴六百間 有一間門一以旧材用下)”고 기술함으로써 서원의 정비공사가 ‘구 상림원’의 토담을 수리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기록은 효종 전에 이미 창덕궁 별원이 상림원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지만, 이전의 사료에서 창덕궁 상림원의 자취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의문인 점은 ‘서원’이 효종 당대에 사용된 이름으로 이후 별원명으로 사용한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추정하자면 같은 기록에서 서쪽 궁장을 뜻하는 ‘서장’이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아, ‘궁 서편에 위치한 궁원’이라는 뜻으로 ‘서원’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12] 특히 한 장소를 두고 ‘외원’, ‘상림원’, ‘궁원’, ‘서원’, ‘서장’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열거된 것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기사의 의미 맥락을 따져보면, 위의 장소명 가운데 ‘상림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순히 ‘궁 밖의 원유’, ‘서쪽에 위치한 궁원’, ‘서쪽 궁장’ 등 위치를 나타낸 임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다. 당시 기록들에 보이는 전후 사정을 따져보아도 고유명사로서 ‘서원’이나 보통명사로서의 ‘외원’이 거론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단순히 ‘궁 서쪽’, ‘궁 바깥[外]’에 있는 원(苑)을 말한 것으로 읽혀진다.

이처럼 서원은 효종 당대에 불렸던 임의적이고 한시적인 명칭이었으나, 실록과 의궤를 통해 이름을 남겼기에 『어제궁궐지(御製宮闕志)』에서 “상림원은 바로 서원으로 요금문 밖에 있다[上林苑卽西苑在曜金門外]”라는 설명으로 소환되었다. 이 기록은 숙종 때의 초간본 『어제궁궐지』부터 보이며 헌종 연간 증보본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혀있다. 당시까지 ‘서원’이란 이름이 지속되었다기보다, 1657년 만수전 공사를 다룬 과거의 문헌을 통해 추록(追錄)된 부분이 아닐까 한다.

3) 함춘원(含春苑)

창경궁과 경희궁[경덕궁]의 별원은 최초 조성될 때부터 ‘함춘원’이라고 불렸음이 확인된다. 창경궁 함춘원의 경우, 궁궐 동쪽에 있는 동산이었으므로, ‘함춘’은 ‘건춘(建春)’, ‘춘생(春生)’, ‘춘화(春和)’, ‘집춘(集春)’ 등 동쪽 궁문의 편액과 같이 방위개념이 적용된 이름이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함춘원’으로 명명된 경희궁 별원의 경우 궁문의 남쪽에 위치하여, 방위 오행과 무관한 이름임을 알 수 있다. 경희궁 함춘원 조성의 첫 기록인 『광해군일기』 11년(1619년) 8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전부터 있었던 ‘함춘원과 상림원의 제도[含春上林之制]’에 의거하여 궁 밖의 우뚝 솟은 지형에 낮은 담장[短墻]을 둘러치고 수목을 많이 심었다고 했다. 이는 명칭을 포함한 경희궁 별원의 개념적 모델이 기존에 운영되던 별원의 전범을 따랐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표 1. 궁궐 별원의 명명 양상

명명 양상	창경궁	창덕궁	경덕궁	중건 경복궁	시기	출전
광해군 연간	含春苑	上林苑	含春苑	-	17C 초	『광해군일기』 11년 8월 25일
별원별 각명(各名)	含春苑	上林苑	芳林院	-	17C 중반 ~ 18C 초	『어제궁궐지』, 문집류
창경궁 함춘원과 제 이궁 상림원	含春苑	上林苑	上林苑	-	18C 중반 ~ 19C 말	고지도류
함춘원으로 통일	含春苑	含春苑	含春苑	含春苑	18C 중반 ~ 19C 중반	『동국여지비고』,『한경지략』
기타 이명	閭春园, 上·下含春苑	閭春园, 西苑	含春院, 上·下含春苑	-	-	『여지도』,『동국여지비고』, 『효종실록』 8년 2월 16·18일

'함춘상림지제'라는 표현을 통해 궁궐 밖에 별원을 설치하는 제도가 신궐을 창건할 때 적용될 정도로 일정한 제도적 보편성을 갖는 궁제(宮制)로 정립된 정황도 엿볼 수 있다.

한 가지 주목되는 현상은 경희궁 별원의 이름이 함춘원으로 정해진 이후, '함춘원'이 개별 별원명에서 궁궐 별원을 지칭하는 보편적 이름으로 상용된 것이다.[13] 이는 각 궁에 부속된 함춘원을 기록한 두 문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동국여지비고』제1권 경도(京都)를 살펴보면, 도성에 소재한 원유를 경복궁 후원, 창덕궁 창경궁 후원, 상림십경, 경희궁 후원, 함춘원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함으로써, 함춘원을 왕실 원유의 한 유형으로 기술하고 있다(그림 2). 폐허로 남아있던 경복궁 후원을 첫 항목으로 실은 것은『동국여지승람』이래 법궁 경복궁을 서두에 넣는 전통적인 편집 방식을 따른 것이며, '상림십경'은 창덕궁, 창경궁 후원의 십경 제영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한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경희궁 후원은 표제만 있고 내용이 없으나 뒤이어 함춘원이 기재되어 있어, 경희궁 후원이 마치 함춘원과 동일한 것처럼 노정하였다. 그런데 함춘원에 대한 설명은 경희궁 별원만이 아닌 제 이궁에 부속된 개별적 별원을 모두 함춘원으로 기록하고 있다. 즉, 각 궁궐의 후원과는 별개로 독립된 원유의 유형으로 함춘원이 소개된 것이다. 게다가 상림원이나 서원으로 불렸던 창덕궁 별원까지 함춘원으로 구분하고 있기도 하여, 19세기 중반에 '함춘원'이 별원을 통칭하는 일반명사로 성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함춘원은 개별적인 별원명이 아니라 도성 원유 제도로서의 함춘원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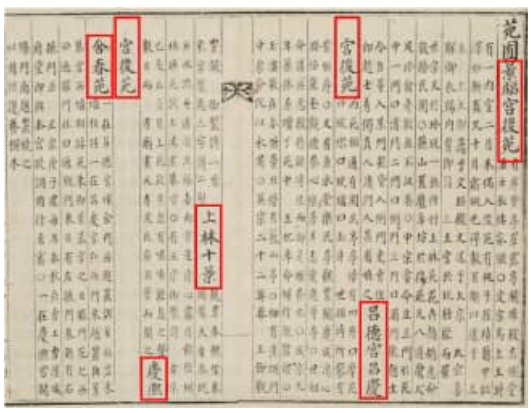

그림 2.『동국여지비고』제1권 원유조

> 함춘원: 하나는 창덕궁에 있는데, 요금문 서쪽 건너 산기슭이며, 경복궁 동쪽 담과 서로 연접했다. 하나는 창경궁에 있는데, 홍화문 동쪽 건너 산기슭이며, 경모궁의 서쪽 담장과 서로 연접했다. 원(苑)의 동쪽은 곧 경모궁의 일첨문이며, 서쪽은 유첨문이라 하고, 북쪽은 유근문이라 한다. 동북쪽에 좌액문이 있고, 동남쪽엔 우액문이있는데, 모두 정종 경자년(1780)에 지은 것이다. 매해 봄·가을에 병조·공조·한성부의 당상과 낭관들이 본궁의 제조와 함께 두루 다니며 간심한다. 하나는 경희궁에 있는데, 개양 남쪽 건너 산기슭이며, 담장을 두르고 수목을 보호하며 기른다. (『동국여지비고』 제1권 원유, 한국고전종합DB)

도성의 별원을 함춘원으로 통칭한 기록은 정조 연간『한경지략(漢京識略)』원유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열거된 원유는 경복궁 후원, 창덕궁 후원, 옥류천, 함춘원 등 네 가지이며, 함춘원은 경희궁과 창경궁에

부속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한경지략』의 출간 시점이『동국여지비고』보다 수십 년 앞서므로 두 서지에 기록된 함춘원의 구분 방법은 어림잡아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중반의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즉, 창경궁과 경희궁에 한정된 별원명이 불과 반세기 만에 도성 별원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명사로 개변된 것이다.

> 함춘원(含春苑)은 경희궁 개양문 밖 남쪽 산기슭에 있는데, 담장으로 둘러놓았고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다. 또 창경궁 홍화문 밖 동쪽 언덕에도 원(苑)이 있어 함춘원이라 부른다.[14] (『한경지략』 원유)

그런가 하면, 동명의 함춘원들을 구분하기 위해 '상함춘원', '하함춘원'으로 명명했던 독특한 현상도 발견된다.『동국여지비고』 한성부 영선조에는 자문감의 9영선이 수리를 담당한 궐 내외의 각처가 열거되어 있다. 이 중에서 3개의 익숙한 별원명이 나오는데, 함춘원은 하함춘원(下含春苑), 상함춘원(上含春苑)으로 구분되어 있으며,[15] 상림원이란 명칭도 별기되어 있다. 기록된 상림원은 전래의 의미대로 창덕궁 별원의 이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상함춘원과 하함춘원이 어떤 장소를 지칭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 무렵 경복궁 신경방에 함춘원으로 명명된 별원이 신설된 상황이었고, 창경궁 함춘원과 더불어 경희궁 남쪽에도 함춘원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러 궁궐의 별원이 함춘원으로 동명인 까닭에서 혼동을 피하고자 '상함춘원', '하함춘원'으로 구분된 것으로 추정될 뿐, 더 이상의 추론은 어렵다.

4) 방림원(芳林院)

여타의 사료에서 경희궁 별원이 '방림원(芳林院)'으로 기록된 것도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숙종 연간『어제궁궐지』에서 경희궁 별원은 방림원으로 명기되어 있다. 기재된 내용은 "방림원은 개양문의 남쪽에 있다[芳林院在開陽門南]"라고 하여 위치 정보를 간단히 설명한 것이 전부이다. 관찬사료에서 방림원은『어제궁궐지』에만 발견되는 명칭이며, 후대의 왕실 사료에서 방림원이 언급된 기록은 모두『어제궁궐지』의 내용을 전사한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자료의 출간 시기로 볼 때 방림원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무렵에 국한된 이름으로 추정된다.『어제궁궐지』가 왕실에서 제작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숙종에서 헌종 때까지 경희궁 별원의 공식적인 지명이 방림원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이때까지 도성의 별원은 각각 함춘원, 상림원, 방림원으로 구별되고 있었을 것이다.

별원명 방림원은 문집의 기록에도 산견된다. 우선 영정조 시대에 요직을 겸했던 채재공(蔡濟恭, 1720~1799)의 시에서 "지난해 방림(芳林) 근처에 집을 구했더니 쌍궐(雙闕)의 어스레한 연기가 궤석으로 들어노는 구나[前年買宅近芳林, 雙闕曨煙几席侵]"라는 구절이 나온다. 친절하게도 '芳林'에는 '상원의 이름[上苑名]'이라는 주석이 달려있다. '상원'은 상림원을 줄여 표현한 것이며 어원(御苑)을 뜻한다. 또한 선조에서 효종 때까지 문신으로 있던 이경여(李敬輿, 1585~1657) 가쓴 「이결성의 만시[挽李結城]」에도 방림원이 나온다. 관련 시문은 "옛집은 방림원 아래에 있었으나 새 무덤은 한강 변에 있다[舊宅芳林苑 新阡漢水濱]"는 구절로서, 당시 관료사회에서 방림원이 구체적으로 인지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실제 1890년대 촬영된 사진에는 경희궁 별원의 담장 밑에 상류 주택으로 보이는 집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그림 3). 아마도 경희궁을 애용했던 영조 때에 함춘원 아래가 고위 관리들의 주거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위 기록에서 말하는 '방림원 아래의 집'이 그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후대의 자료에서 여전히 함춘원이나 상림원의 출

그림 3. 1890년대 촬영된 경희궁 함춘원과 주변 민가의 모습
자료: 러시아 쿤스트카메라 박물관

현이 대다수이기도 하여 방림원은 한때 경희궁 별원을 불렀던 이명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5) 별원명의 혼용 양상

이상과 같이 궁궐 별원은 다양한 이름으로 호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대 같은 장소를 복수의 이명으로 부르는 지명의 혼용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시대 궁궐 별원명의 사용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식적인 지명으로 널리 통용된 창경궁 함춘원의 이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별원을 상림원으로 부르는 유형이다. 이는 경희궁 별원이 고지도에서 대부분 상림원으로 표기된 사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별원이 가지는 금역의 속성을 상림원이라는 고전적 원유명으로 표상했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헌 기록에는 경희궁 별원이 함춘원 또는 방림원으로 지시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여, 지도에서 상림원의 표기가 많은 것과 배치된다. 이러한 지명의 불일치를 밝힐 직접적인 단서는 찾을 수 없으나, 정조 이후 경희궁으로의 임어가 점차 소원해졌던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서궐(西闕)로 불렸던 경희궁[경덕궁]은 광해군 때 창건된 이래 인조가 10년 가까이 거처했고, 숙종이 12년 반, 영조가 19년 가량 임어하는 등 사용빈도가 높았다. 하지만 정조 이후의 임금들은 주로 동궐로 불렸던 창덕궁과 창경궁에서 생활하였는데(홍순민 2017, 429-430), 경희궁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던 상황에서 경희궁의 별원은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조선왕조실록』에서 경희궁 별원을 언급한 기사는 광해군 이래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이유로 경희궁 별원은 최초 함춘원으로 명명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이 망실되었거나 그 대안으로 방림원, 상림원과 같은 이명이 모색되었을 수도 있다.

둘째, 앞서 살펴본 영조 8년『승정원일기』의 기록에 명시된 "東有含春, 西有上林"의 인식이 창덕궁과 창경궁의 개별 사례만이 아닌 도성 원유체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검토해 볼 만하다. 즉, 선대에 이룩된 창경궁 함춘원을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한 다른 이궁별원이 모두 '상림원'으로 통칭하는 방법으로 명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함춘원, 서상림원'의 명명 원칙이 도성 원유체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단언하기에는 관련 사료가 충분하지 않다.

셋째, 이궁 별원을 각각의 호칭으로 명명한 사례이다. 이를테면 창경궁, 창덕궁, 경희궁의 별원을 각각 함춘원, 상림원, 방림원으로 달리 불렀던 것인데, 지명의 혼동을 회피할 목적에서 개별 호칭이 제법 긴 시간 동안 전해온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자료의 제작 시기에서 보듯, 이런 호명법은 17~18세기의 자료에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넷째, 별원을 모두 함춘원으로 통칭하는 양상은 18세기 중반부터 조선말까지의 자료에서 두루 확인된다. 이는 1750년대에 제작된『여지도·도성도』에서 경희궁 별원이 '含春院'으로 표기된 것과 도성의 모든 별원을 함춘원으로 설명한『한경지략』,『동국여지비고』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나 이 역시 일반화하기에는 사료의 수가 한정된 점이 아쉽다. 그러나 중건 경복궁의 별원명이 '함춘원'으로 명명된 사실은 19세기에 이르러 통치집단의 암묵적 합의 또는 명명 관례에 의해, 모든 별원을 '함춘원'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다시 말해 창경궁 함춘원 이래 각 궁의 별원은 각기의 명칭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최초 함춘원의 공간형태와 운영방식이 답습되면서 점차 '함춘원'으로 수렴되어 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는 못했는데, 19세기 말 일제의 침략으로 기존 궁궐 체계가 해체되고 함춘원으로 대표되는 별원의 물리적 실체가 망실되면서 그 이름도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6) 중국 고대 원유명의 답습

상기 별원명의 '이름 짓기' 방식에서 주목해 볼 것은 상림원, 방림원, 서원이 고대 중국 제왕의 원유를 표방한 제명(題名) 의식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방림원은 본래 삼국시대 조위(曺魏)의 문제가 업성(鄴城)에 조성한 원유였고, 수나라 때 동도[낙양]에 건설된 서원(西苑)은 상림원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규모가 컸던 황가원림이었다. 또한 진(秦)대 상림원, 서한(西漢) 장안 상림

원 및 동한 낙양 상림원 등의 사례에서 보듯, 중국 역대 제왕의 원유는 대개 상림원으로 명명되었다. 상림원에 내포된 문화적 기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궁실 원유로 기억되는 진시황과 한무제의 상림원이었다.

따지고 보면 진한시대의 원유는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편입되기를 자처한 조선의 지식사회가 동경한 중화 문물의 최고점을 상징했다. 조조의 손자 조예 곧, 위나라 명제가 온갖 물량을 투입하여 화려하게 고친 방림원[화림원]은 어떠한가. 『삼국지·위서』 명제기에 따르면, "(방림원에) 태극전을 일으키고 총장관을 쌓았는데 높이가 10여 장이었다. 봉황 조각을 그 위에 세웠다. 또 방림원의 물가에서 노 저어 월나라 노래를 불렀다"[16]고 하여 화려하고 장대했던 고대 어원(御苑)의 문화적 형상이 묘사되어 있다. 그런 방림원 역시『조선왕조실록』에서 제왕 문화의 본보기로 자주 거론되었던 원유였다. 조선 국왕의 입장에서 상림원과 방림원은 동경의 대상으로 점철된 '절대권력을 표상한 원유'였다. 따라서 궁원의 이름으로 사용된 상림원과 방림원은 고대 중국에 실존했던 제왕의 원유를 답습한 명칭이며, 조선시대 군왕이 소유한 어원의 이상향을 표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시적 명칭이긴 하였으나 창덕궁 상림원이 서원으로 회자된 것도 그러한 문화적 기원에 근거하였을 것이다. 수당시대 제1의 어원이었던 서원은 바다를 상정한 거대한 북해(北海)와 삼신산도, 용린거를 비롯하여 매우 정교하고 화려했던[精麗] 16원(院)이 조성되어 선경을 구가했던 원유로 명성을 떨쳤다. 수양제가 궁녀 3천 명을 거느리고 서원을 유람했던 기록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필독서였던『통감절요(通鑑節要)』에도 세세히 적혀있기 때문에,[17] 상림원, 방림원과 마찬가지로 호쾌한 제왕의 기상을 표방한 원유 이름으로 서원이 차용되었을 여지는 충분하다.

그와 달리 함춘원은 역사적인 중국 원유와 상관없이 조선에서 처음 사용된 이름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한무제의 상림원과 위문제의 방림원이 고대 중국의 원유로 조선의 임금과 신하들의 대화에서 자주 등장했던 소재였다면, '함춘(含春)'은 당시(唐詩)와 송사(宋詞)에서 즐겨 썼던 시어에서 비롯된 말로 추정된다. 실제 조선시대의 문집에서 '含春', '含春意' 등의 시어를 사용한 다수의 작례가 발견된다.[18] 당송 시사(詩詞) 문학을 지향했던 조선 지식사회의 성향을 고려해 본다면, '함춘'은 성종을 비롯한 조선 통치집단의 문학적 취향이 반영된 이름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4. 궁궐 별원의 성격과 기능

1) 민간의 궐내(闕內) 조망 통제

15세기 중반 이궁의 건립과 확장 과정에서 대내가 외부에 노출된 문제는 한동안 왕실이 경험한 골칫거리였다. 이는 국초에 설정된 법궁 중심의 공간 체계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였다. 한양 도성은 풍수설에 의해 택지되어 사방으로 산에 둘러싸인[內四山] 명당(明堂)의 형국을 이루고 있었다. 궁궐의 경우 도성의 주산을 배후에 두었으므로 도성의 북쪽에 치우친 곳에 터를 잡았으며, 양옆으로 내맥(來脈)으로 설정된 산줄기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위치가 정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난 왕실의 구성원을 수용하기에 기존의 궁궐이 비좁아지게 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된 방법은 이궁을 건설하거나 궁장을 물려 쌓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특히 역대 임금이 선호하여 자주 머물렀던 창덕궁은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동원되었다. 세조는 창덕궁을 확장하기 위해 동북쪽 58구(區)의 민가를 철거하여 수천 척을 물려 궁장을 다시 쌓았고,[19] 성종 때에도 창경궁을 건설하면서 구릉지 바로 아래까지 궁역을 확장했다.

이처럼 창경궁은 창덕궁 동쪽으로 지형의 한계에 맞춰 최대한 넓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궁역이 설정되었으나, 뜻하지 않게 민간에서 궐 안을 들여다보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때는 조선을 건국하고 도성을 정한 지 근 백 년이 경과하여 높은 지대까지 집을 지어야 할 정도로 도성 안에 인구가 늘어난 상황이었다. 특히 성종조에는 창경궁의 동쪽 구릉지 일대에 난립한 수백 호의 민가로 인해 궁궐을 임압(臨壓)[20]하는 가사(家舍)의 처리 문제가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우선『성종실록』7년(1476)의 기사에는 궁궐 밖 언

덕 위에 많은 민가가 들어차 있어 궁궐의 지형적 형세를 임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보인다.[21] 이때 해결책으로 의논한 방법은 궁장에 인접한 언덕에 민가를 철거하고 궁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음으로써 왕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당시 창덕궁과 수강궁뿐만 아니라 경복궁도 '임압 가옥'의 철거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었는데, 성종 12년(1481)에는 이러한 세 궁궐 주위의 일반 가옥 199동, 가묘(家廟) 31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수목을 심어서 장래 발생할 민간의 무단 이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보고자 하였다.

> 지금 금기(禁忌)로 인하여 철거시키는 집들의 터에다 뒷날 혹시라도 무식한 무리들이 함부로 빈 땅이라고 하면서 틈을 타서 집을 짓거나, 혹 근처의 사람들이 담장을 물려 쌓아서 전원(田園)을 만들고 경작을 하거나, 땅을 파서 지맥을 손상시키는 자가 혹시라도 있을 듯합니다. … 과목(果木)·송백목(松柏木)·잡목을 그 토질에 따라 많이 심게 하고, 매년 연말에 공조와 한성부에서 돌아다니며 살펴 아뢰도록 하소서. (『성종실록』 12년 1월 20일(乙未), 한국고전종합DB)

199동에 달하는 민가의 철거 규모는 궁궐을 마주하는 가옥만이 아니라 산맥·산등성이[山脈山脊]의 집들을 포함한 것이었다. 당시 성종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국초에 지리의 학설[地理之說]을 써서 모든 산맥과 금기처(禁忌處)에 사람이 짓밟지 못하게 하고 건축 행위를 규제하였는데 지금 백성들이 산맥을 파거나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아서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22] 즉, 궁궐이 훤히 조망되는 '통망처(通望處)'의 왕래를 규제하여 왕실의 내밀한 공간을 보호한다기보다, 궁궐의 양기를 저해하고 있는 민가를 철거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그럼에도 백성의 원성을 사는 일이었으므로 궁장 밖 민가의 철거 문제는 풍수설을 불신하던 신료들의 반대로 보류되었다가, 성종 15년(1484) 창경궁이 창건된 직후 세 분의 대비가 이곳에 이어하면서 금역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일단락이 났다. 이때 민가를 철거하지 않는 대신 궁궐 안이 들여다보이는 동쪽 언덕에 버드나무 등 빠르게 자라는 수목을 심게 하였는데, 이것이 창경궁 함춘원의 시초로 보이는 기록이다. 당시 성종은 과목을 심어 생산지로 삼자는 공조의 의견을 거부하고 속성수를 심도록 하여 즉각적인 차폐를 주문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별원의 시원적 조성 목적과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려준다.

> 앞서 두 대비[兩殿]께서 창경궁으로 이어하도록 하면서 담 밖에 '통하여 바라보이는 곳[通望處]'이 있을까 하여 해당 관사로 하여금 속히 자라는 잡목을 널리 심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해사에서 과목을 심도록 청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 버드나무같이 쉽게 자라는 나무를 섞어 심어서 바라보이는 곳을 가리어 막고자 하는데, 이제 공조에서 과목을 심기를 청하니, 이는 나의 본의가 아니다. 외간에서 들으면 반드시 나를 원지(園池)에 나무를 심어서 관상을 좋아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이 되면 애매함이 없겠는가? 장원서 노예(掌苑署奴隷)로 하여금 버드나무를 빨리 심게 하라." (『성종실록』 15년 10월 16일(庚午), 한국고전종합DB)

한편 성종 24년(1493)의 기록에는 '함춘원장(含春苑墻)'이라는 말이 보인다. '함춘원'이라는 궁원의 이름과 더불어 담장의 존재가 동시에 언급된 것이다(김원모 1964, 58-59).[23] 함춘원이 위치한 언덕은 궁궐의 청룡맥에 해당되는 지형이었지만, 백성들이 가옥을 짓고 밭으로 개간했던 것이 성종 재위 초부터 폐단으로 자주 거론된 상황이었다. 때문에 함춘원을 둘러친 담장은 산의 지세를 배양하고 임압가(臨壓家)가 궁궐의 내맥(來脈)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겸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후의 기사는 창경궁 내전을 구경하는 민간의 '관광(觀光)' 행위 문제가 개선되지 못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왕이 궐 밖으로 행차할 때 민간에서 함춘원 내외에 장막을 치고 궁궐을 관람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궁궐에 속한 아이들도 함춘원으로 들어가 장막을 치고 구경하는 일이 거론되는 등 별원의 조성 초기에는 궁궐 밖의 구릉지에서 대내를 조망하는 행위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얼마 뒤 궁여지책으로 후원 내부에 담장과 울을 치고 시렁을 매다는 방식이 병

행되기도 했는데,[24] 후원을 향한 외간의 시선을 극도로 꺼려했던 연산군 대에 이르러서는 함춘원의 담장을 성과 같이 쌓아 올려 외부의 시선과 더욱 거리를 두는 물리적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는 대비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 했던 종래의 목적과 달리, 후원에서의 유락이 빈번해지면서 그의 놀이가 외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25]

이 무렵 연산군은 창경궁 동편의 여염집이 후원을 굽어보는 것을 싫어하여 궁장을 높게 쌓도록 하였다.[26] 또한 후원과 마주하고 있는 성균관 일대의 민가[27]와 함춘원 남쪽 담장 밖의 민가를 철거하고[28] 창경궁 동장(東墻) 밖에 백성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군사를 배치하여 지키게 하는 등[29] 일반인이 후원을 엿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연산군 10년(1504)에는 대내가 심원(深遠)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함춘원 담장을 연장하여 '신성(新城)'으로 불린 담벼락을 쌓게 했다. 신성은 함춘원부터 사섬시(司贍寺) 건너편을 지나 동소문에 이르는 구간에 높은 성벽을 쌓은 형태였다고 전해진다.[30] 특히 함춘원 모퉁이에 문을 내어 내원과 통하게 했다는 기록[31]은 그가 방탕한 유희를 벌이는 장소인 후원과 궁궐 밖 함춘원을 연결하여 금원의 영역을 확장하려 한 의도로 읽혀진다. 신성의 건설을 구상한 연산군의 계획은 후원과 함춘원을 연결하는 동시에 동소문에 이르는 공간을 금원의 영역으로 설정하여, 음유(淫遊)과 유연을 위한 거대한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었다. 신성이 완공된 뒤로는 잡인들이 담을 올라가서 내원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시가 있는 나무[荊棘]를 담장에 두르게 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32]

반면 연산군을 축출하고 즉위한 중종은 연산군과 관련된 모든 후원의 시설들을 철거하면서 함춘원의 높은 차폐벽을 제거했다. 이때 강제로 퇴거했던 백성들을 다시 불러와 살게 하였는데,[33] 이는 함춘원이 금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는 단초로 작용했다.[34] 선조 연간에는 왜란의 와중에 덕빈의 시신을 함춘원에 임시로 매장하는가 하면,[35] 호랑이가 함춘원에 출몰하여 여염집 개를 잡아갔다는 등의 기록[36]에서 별원의 관리가 소홀해진 정황도 엿볼 수 있다. 그러다가 인조 연간 함춘원의 절반을 궁중의 여마(輿馬)를 관장하는 관청인 사복시(司僕寺)에 나눠줌으로써 함춘원은 방마원(放馬苑; 放馬場)으로 운영되기에 이른다.[37] 방마원은 말 그대로 왕실에 소요되는 내구마(內廐馬)를 기르는 장소를 가리킨다. 그러나 개방된 장소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행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과거 급제자를 비롯한 종친, 유생들이 여악을 불러 노는 장소로 변질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영조 때 극심해져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영조 8년(1735)의 기록에는 함춘원의 허물어진 담장이 보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잡인들이 들어와 돗자리를 깔고 노는 것을 보고 영조가 탄식하는 장면이 나온다.[38] 당시 기록에 나타난 별원에 대한 인식은 "궐 안을 굽어보고 있으므로 예로부터 담을 쌓고 동산을 만들었으니, 비록 궐 안과는 다르지만 모두 금원이다"는 말에서 구체적으로 전달된다. 이후 영조는 유명무실한 방마원의 자리에 수은묘(垂恩墓)를 이건하고, 상림원과 함춘원의 담장을 수축하도록 함으로써 금원의 체모를 되살려 보고자 하였다.[39] 그는 재위 동안 조종의 옛터 즉, 선대의 사적에 관심을 가지고 왕실 공간의 상징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신과 왕조의 통치기반을 확보하는 일련의 행보를 보였다. 이는 영조가 선왕대의 사적을 찾아내어 기념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를 명하는 것으로 이행되었는데, 상림원과 함춘원의 담장은 영·정조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수리되어 심원하고 엄숙한 금원의 위상을 복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임진왜란 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창덕궁 상림원도 민간의 조망을 규제할 목적으로 흙담을 쌓아 출입을 막은 것에서 시작되었다(그림 4). 창덕궁 서쪽의 상림원이 부각된 사건은 효종 8년(1657) 대비전인 만수전이 준공된 직후였다. 당시 외부에서 대비전을 굽어보는 조망을 차단하기 위해 옛 상림원터에 흙담을 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효종실록』에 기록된 구 상림원 수축 공사는 대간들 사이에서 '서장(西墻)을 수축하는 공사[西墻之役]', '서원(西苑)의 공사[西苑之築]', '바깥 궁원 공사[外苑之築]'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40] 그 뒤로 영·정조 연간에 상림원의 담장을 보수하는 여러 번의 수리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림 4.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창덕궁 상림원의 원장과 원문
자료: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 2006, 18.

산비탈 위에 있어 자주 허물어졌던 흙담의 보수작업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영조는 "상림원은 만수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다. 그 원(苑)의 언덕[崗]이 높아 궁궐 안을 굽어보기[俯臨闕中] 때문에 일찍이 현묘조 때 '각원(各苑)'[41]에 담장을 둘렀다"[42]고 하여 상림원의 설치 목적이 민간에 노출을 막기 위한 시설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상과 같은 동궐 양측 별원의 지형 조건은 경희궁 함춘원이나 중건 경복궁 함춘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경희궁 함춘원은 개양문 남쪽의 궁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릉지 정상부에 위치했다. 이 언덕은 근대기의 여러 기록에서 서울 시가지가 시원하게 조망될 정도로 전망이 좋다는 특징으로 묘사된 바 있다. 당시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기록물에 의하면, 러시아공사관이 이곳에 건립된 이유는 "도읍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전망이 좋고"(카르네프 저, A. 이르계바이브·김정화 역 2003, 81) 보는 이로 하여금 "우세한 상징적 힘을 과시할 건물"(지그프리크 겐테 저, 권영경 역 2007, 200)을 짓기 위함이었다고 전했다. 주변을 압도하는 건물 외관의 가시적 효과가 '궁궐 임압처'나 '통망처'으로 규정된 함춘원의 지형 조건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가장 늦게 만들어진 중건 경복궁의 부속 별원도 마찬가지로서, '함춘원'이라는 원명을 사용한 공통점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이궁 별원으로 운영된 함춘원 제도의 전례를 답습한 흔적이 역력하다. 『경복궁영건일기』 무진년(1868) 4월 24일 기사에는 신경현(新慶峴)에 함춘원을 만들고 흙담을 쌓아 둘렀다고 하여 경복궁의 중건 때 조성된 경위가 기록되었다(서울역사편찬원 2019, 449). 그 위치는 『대한매일신보』 1908~1910년의 기사에서 '북부 함춘원', '맹현 함춘원', '삼청동 함춘원', '화개동 함춘원' 등의 명칭으로 나타나는데(오준형 2019, 42),[43] 현재의 정독도서관 일대의 언덕으로 파악된다.

신경현 함춘원의 입지와 관련하여 유의되는 부분은 궁 동쪽으로 장원서가 자리한 진장방 일대의 언덕이 기존 이궁 함춘원의 지형 조건과 상통한 점이다. 그림 5는 함춘원이 위치한 진장방 신경현 일대 고개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다. 사진의 전경을 보면 드넓은 경복궁을 부감경으로 담아냈고, 가깝게 위치한 건물이 녹산 아래에 있던 선원전인 것을 볼 때 지금의 정독도서관 근방에서 촬영한 장면으로 보인다. 곧 경복궁 신경현 함춘원의 위치로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대동방여전도」(19C 중반)에도 같은 위치에 담장을 둘러친 함춘원의 부지 형태가 확인된다(그림 6). 이는 경복궁 중건 뒤에 별원 경영의 전례를 준용

그림 5. 신경현 일대에서 바라본 경복궁 전경(1876~1888 추정)
자료: 문화재청 2006, 128-129.

그림 6. 19C 중반 제작 도성도에 나타난 경복궁 함춘원
자료: 『대동방여전도』 한성부 도성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341-v.2)

그림 7. 장원서~중학에 이르는 경복궁 내맥의 도식
자료: 도성대지도(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014165)

하여 궁궐이 조망되는 언덕에 새롭게 함춘원을 조성한 것으로, 정형화된 별원의 개념과 형식이 조선 말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44]

2) 궁궐의 지세(地勢) 보호

도성과 궁궐은 왕권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전통적 풍수관념에서 이상적인 지리적 조건을 갖춘 길지에 자리 잡는다. 주지하듯 국왕이 거주하는 궁궐은 국도 풍수의 기준점이 되는 주산의 명당에 입지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는 땅의 힘을 빌려 왕조의 영구한 지속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었으므로, 궁궐 내외의 사신사(四神砂)와 명당수의 역량을 보존하는 것은 왕실의 안녕을 보장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왕실은 궁궐 주산과 내맥에서의 경작을 금지하였고, 궁궐의 맥을 덮어 누르는 산줄기를 금기로 설정하여 가옥의 건립을 제한하였다. 특히 궁궐에 인접한 별원은 궁궐을 둘러싼 풍수적 국면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형이었기에 나무를 심어 지기를 보양하고 벌목을 금지하는 조치가 수반되었다. 별원의 공간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국초에도 그런 인식을 찾아볼 수 있으며, 성종 이후로는 보호 대상으로 간주된 특정 지형이 점차 별원의 공간 형식으로 발전한 흐름도 나타난다. 이에 관찬사료에서 궁궐 주변 지형의 보호에 관련된 인식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별원 설치의 목적이 도출된다.

첫째, 국초부터 경복궁의 풍수는 백호가 높고 세력이 좋으나 청룡이 낮고 약한 것이 결함으로 지적되었다. 세종 때 최양선 등 술관들이 일으킨 경복궁 명당시비 사건에서 그와 같은 인식이 엿보이며(이숭녕 1985, 518-535), 문종 연간 경복궁의 동쪽 내맥에 금표를 세운 기록에도 별원의 조성에 대한 시초적 개념이 나타난다. 문종 1년(1451), 궁궐·왕릉의 형세를 감별하는 관서인 '풍수학'은 경복궁의 사신사를 평론하면서, 청룡이 백호에 비해 낮고 미약하므로 금표를 세우고 소나무를 심어 지맥을 보호할 것을 주청하였다.[45] 풍수학이 지목한 경복궁의 청룡맥은 가각고(架閣庫) 북쪽의 산줄기였다(그림 7). 당시 벌채와 민가의 난립으로 산맥이 상했다고 거론되고 있으나 성종 12년(1481)의 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오히려 벌채로 인한 산맥의 훼손이 심화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때는 창경궁을 건립하기 3년 전으로 수강궁 맞은편 언덕에 궁궐을 임압하는 민가를 철거하는 문제와 더불어 경복궁 동록(東麓)에 난립한 민가가 밭을 개간하여 산맥을 손상시키는 폐단이 함께 제기된 터였다. 이 기록에서 왕명을 받아 임압 민가의 현황을 조사한 좌의정 윤필상 등은 장원서 북참에서 중학(中學)까지가 경복궁의 내청룡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청룡맥에 과실수와 송백목(松栢木)을 심는 한편 장원서 앞길이 풍수상 경복궁의 왼팔[左臂]에 해당하므로 길을 막아 식수할 것을 상언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장소는 훗날 경복궁 함춘원이 들어서게 되는 진장방 일대의 언덕으로 좁혀진다. 당시 송백을 심고 금역으로 설정된 영역은 뒷날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새롭게 조성된 '진장방 북부 함춘원'의 시원적 형태로 소급해 볼 수 있다.

> 장원서 북참(北站)에서 중학(中學)까지는 바로 경복궁의 내청룡에 해당되는데, 산세가 낮고 약하다고 하여 국초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어 지맥을 배양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번 전교를 받아 산등성마루의 안팎에다 각각 20척의 한계를 세워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무리들이 간혹 집을 짓거나 난장(欄墻)을 뒤로 물려 쌓으며, 혹은 나무를 베고 전지(田地)를 개간하며, 못을 만들고 우물을 파서 산맥을 손상시키니, 마땅히 유사(攸司)로 하여금 추국하여 죄를 묻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산등성이를 침범하여 점유할 곳은 앞서 전교를 받은 것에 의하여 다시 살펴서 척량(尺量)하여 모두 철거시키고, 과목과 송백목(松栢木)을 심어 장원서로 하여금 고찰하도록 하소서. 또 장원서의 남쪽 양정(楊汀)의 집 앞길도 경복궁의 왼쪽 팔[左臂]에 해당하는 산맥으로서 가장 긴요한 곳인데도 인물이 통행하며 땅을 파고 침범하여 훼손시키니,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곳도 마땅히 막아서 나무를 심게 하소서. (『성종실록』 12년 1월 20일(乙未), 한국고전종합DB)

둘째, 광해군 연간 경덕궁과 함께 조영된 함춘원은 애초부터 풍수상 허한 지리적 여건을 비보할 목적에서 출발했다. 광해군 11년(1619) 경덕궁의 공사가 한창일 때 전각 배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술관들은 궁궐 밖

에 우뚝하게 돌출한 지형에 주목하였다. 이에 신궐영건도감(新闕營建都監)은 술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담장을 둘러치고 수목을 심어 풍수상 허한 지형을 북돋아 주고자 하였는데, 그 위치는 자정전·숭정전에서 개양문에 이르는 정전의 건너편 언덕이었다. 이 언덕은 경덕궁의 풍수적 국면에서 안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형이었다. 이에 신궐의 건축이 마무리되자 곧바로 담장으로 한계를 정하고 수목을 심기에 이른다.

> 신궐 영건 도감이 아뢰기를, … 술관(術官)의 말에 '진방(震方)이 허한 듯하나 이곳의 지형이 우뚝하게 돌출하여 있으니, 궁궐 담장 밖에 낮은 담장을 둘러치고 수목을 많이 심어서, 마치 함춘원·상림원의 제도와 같이한다면 지리적인 여건이 가장 좋겠습니다. (『광해군일기』 11년 8월 25일(乙亥), 한국고전종합DB)

위 기사에서 진방(震方)의 돌출된 언덕은 궁궐의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여 길지로 만드는 지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향하는 흥화문을 기준으로 하면 이 우뚝한 지형은 진방(震方: 동북방)에 위치하여 청룡맥의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위 기사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은 술관들이 제청한 지형 정비의 모델이 창덕궁·창경궁의 별원인 기존 상림원과 함춘원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전부터 존재했던 각 이궁의 별원이 비보풍수림의 개념으로 관리되었다는 말과 다름없어 보인다. 즉, 광해군 연간에 만들어진 별원의 지향점이 '함춘상림지제(含春上林之制)'라고 하여, 통상적으로 인지된 유형화된 제도로 언급된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별원의 정체성은 궁궐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영된 개별 단위의 원유가 아니라, 궁궐의 내맥(來脈)을 관리하는 계획개념으로 정립된 제도적 산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 전형적 형식은 수목을 많이 심어서 지기를 북돋고 담장으로 가로막아 통행으로 인한 지형 훼손을 최소화했던 창경궁 함춘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부터 개양문 맞은편의 언덕은 경희궁에 부속된 별원으로 가꾸어져 함춘원으로 명명되었다. 당시의 경위는 임희성의 문집 『재간집(在澗集)』의 기록에 언급되어 있다(오준형 2019, 22). 임희성은 함춘원이 있던 동산이 본래 선조의 부마였던 홍우경(洪友敬)의 저택이었는데, 신궁이 완성되자 광해군이 그의 집을 탈취하여 '함춘원'이라 이름하였다고 기록했다. 글의 어조는 광해군이 무도하여 부마의 사택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어차피 궁궐 풍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으로 인식된 이상, 민가의 철거가 후속되는 것은 왕실의 입장에서 응당한 조치였을 것이다.

> 광해가 경덕궁을 지을 때 공[홍우경]이 거처하는 동산이 궁장과 서로 연달아 있었는데, 공은 그리 가까운 것을 내심 싫어하였다. 그래서 담장의 한계를 줄이고 작게 하였는데, 광해가 취하여 '함춘원'이라 이름하였다.[46] (『재간집(在澗集)』 제6권 「奉憲大夫唐原尉洪公行狀」, 번역 참조: 오준형 2019, 22)

셋째, 광해군 때 경덕궁 진방(震方)의 언덕이 비보의 관점에서 조명된 것에 이어 창경궁 함춘원의 지형도 풍수적으로 재해석되었다. 광해군 7년(1615) 한 술관은 동향으로 건립된 창경궁을 남향의 제도로 고칠 것을 상언했다. 그러나 좌향을 남향으로 설정할 경우 공간이 여의치 않아 함춘원 남쪽 언덕을 훼손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자 궁궐의 재건을 전담한 선수도감(繕修都監)은 함춘원의 산줄기가 경복궁·창덕궁·창경궁과 종묘까지 걸쳐있는 내청룡(內靑龍)이기 때문에 지형을 깎는 것이 불가하다는 반론을 펼쳤다. 내청룡은 도성에 생기를 모이게 하는 사산(四山) 내부에 형성된 작은 국면의 사신사를 말한다. 이를테면 도성의 외곽에 청룡맥으로 설정된 타락산(駝駱山)이 있고 그 안쪽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을 감싸는 작은 산줄기 하나가 내청룡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함춘원이 있는 산지라는 것이다.

> 이른바 함춘원 한 줄기는 바로 경복궁·창덕궁·창경궁 및 종묘의 동편에 있는바, 바로 이것이 내청룡입니다. 이는 보충시켜 북돋우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어찌 깎아내야 하겠습니까. 이곳은 도읍을 정하던 초기에도 일찍이 이론이 없었습니다. (『광해군일기』 7년 7월 11일(丙辰), 한국고전종합DB)

창경궁 함춘원을 도성과 궁궐의 내청룡으로 보는

인식은 영조 1년(1725)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47] 이때 종묘의 증축 공사를 위해 함춘원에서 흙을 채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중신들의 반대로 다른 곳에서 흙을 가져오도록 한 일이 있었다. 당시 외간의 의론으로 회자된 창경궁 함춘원 터의 정체성은 '시어소(時御所)의 청룡맥(靑龍脈)'이었다. 즉, 도성 동쪽의 청룡맥이 내외로 궁궐을 옹호(擁護)하고 있는데, 함춘원이 안쪽 청룡에 해당되는 산이기 때문에 일체의 절토 및 취토 행위를 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함춘원(涵春苑)에서 취토(取土)하도록 결정하였는데 지금 바깥의 의론은 모두 함춘원은 시어소의 청룡이 되는 맥이므로 취토에 적합지 않다고 합니다. (『승정원일기』 영조 1년 을사(1725) 11월 22일(丙辰), 한국고전종합DB)

창경궁 함춘원을 도성과 궁궐의 청룡맥으로 보는 것은 국초에도 이론이 없던 내외 사산의 구성 논리였다. 그런데 정조 때에는 이를 두고 청룡맥이 아닌 '안산(案山)'으로 불렀던 기록이 있다.『경모궁의궤』에는 경모궁과 함춘원이 있는 산록을 구분하여 '안산', '외안산(外案山: 안산 밖의 공간으로 추정)'으로 명명하고 이곳에서 수확한 과일을 진상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연관하여 안산직(案山直)[48]이라는 구실아치가 안산의 유지 관리를 맡아보았다고 하여, 안산이 일정한 영역으로 지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필 수 있는 안산의 용례는 함춘원 내부의 언덕을 지시하는 고유명사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안산이 묘택 맞은편의 낮은 산을 가리키는 풍수 용어인 것과 그것이 경모궁 내외에 위치한 지형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안산은 창경궁의 좌향을 중심으로 한 객산(客山)의 개념 또는 경모궁에 영향을 미치는 풍수상의 지형을 일컫는 지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3) 궁궐 밖 동산의 녹화와 생산림의 조성

각 궁궐 별원에 어떤 수종을 심어 숲으로 가꾸어진 것인지는 사례별로 고구해 볼만큼 사료의 기록이 충분치 않다. 다만 앞서 살펴본 성종 15년의 기록에서 대신들이 함춘원에 과수를 심자고 한 것에서 실용적 원유가 선호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뿐이다. 단편적인 기록이지만, 인조 9년(1631)에 함춘원을 적간(摘奸: 부정이 있는지 조사하여 살핌)했다거나 인조 24년(1647) 함춘원 담장을 넘어 밤을 훔친 자를 잡아들인 기록[49]은 별원이 과목의 생산지로 운영되었던 사실을 알려준다. 이는 궁궐 별원이 넓은 녹지를 확보하여 생산림의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내용이 소략하여 구체적인 식수 상황이 파악될 정도는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임진왜란 전까지 창경궁 함춘원은 왕의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신성의 설치와 철거, 방마원의 운영, 민가의 난립과 벌목 등으로 함춘원 일대는 황폐해져 민둥산으로 변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모궁이 함춘원으로 이전한 뒤로 사정이 달라졌다. 정조는 왕실의 체모를 고려하여 함춘원을 궁묘림으로 정비하고, 수만 그루의 녹음수, 과수로 이루어진 숲으로 변모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경모궁과 함춘원 일대의 식재공사 및 관리사항을 기록한『식목실총(植木實總; 植木節目)』과『경모궁의궤』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식재공사를 총괄한 서명선(徐命善)이 밝힌 공사의 내용은 궁묘의 엄숙한 환경조성을 위한 녹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782년 함춘원 공사 전의 상황을 서술한 부분을 살펴보면, 경모궁 주변에 나무가 듬성듬성하여 묘(廟)의 체모가 손상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봄가을로 많은 수목을 심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수만 그루에 달하는 울창한 숲으로 변했다고 기록되어 있다.[50]『식목실총』과『경모궁의궤』에서 식재계획 및 공사의 방향을 요약하면 첫째, 황량한 경모궁 주변 산지를 속성 녹화할 목적으로 착수되었고 둘째, 궁궐과 별원을 연결하는 녹지대에 후원에 사용된 것과 같은 몇 가지 수종을 식재하여 통일감을 부여하였으며 셋째, 식재 공사에 앞서 지형과 수계를 정비하는 공사가 선행되었고 넷째, 다량의 수목 및 초화류, 지피류를 식재한 것이었다. 이 같은 녹화공사의 결과는 아래 기록에서 보듯 엄숙한 궁묘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무성한 수림'으로 나타났다(그림 8·그림 9).

> 궁궐 밖의 형승이 황폐하여 다스려지지 않았는데, 돌출된 곳을 수리해 금포(襟抱)로 삼았고 물이 고인 곳은 터서 못과 어구로 만들고, 어구 가운데 굽이진 곳에는 다리를 걸쳐 놓았다. 그런 다음 궁궐 안의 원유로부터 사산(四山)이 구불구불 두른 곳에 이르기까지 소나무, 삼나무, 단풍나무, 녹나무, 매화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초화류, 각종 풀 따위를 가득 심었더니, 짙은 그늘이 연이어졌고, 푸르름이 서로 비추었다. 그런 연후에 예전의 황폐한 곳이 번화함에 이르고, 예전의 황량한 곳은 무성한 초목으로 변했으니, 묘의 체모가 더욱 엄숙해졌다.[51] (『식목실총』序, 필자 역)

위에서 서명선이 작성한 식목안(植木案)에 따르면 소나무[松], 삼나무[杉: 잎갈나무; 이깔나무], 단풍나무[楓], 녹나무[樟],[52] 매화나무[梅], 은행나무[杏], 복숭아나무[桃], 버드나무[柳], 가화(嘉花), 총초(蔥草) 등을 심었다고 하여, 다양한 종류의 수목과 초화류가 망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대의 인식에서 궁궐 별원에 식재된 특정 식물의 종류를 밝힌 것으로, 다른 이궁 별원에 사용된 식물 소재를 추정해 볼 단서로 여겨진다. 식재된 수종의 면면을 보면 대체로 녹음을 위한 기능 식재는 물론 과실의 수확을 염두에 둔 것들이다. 소나무, 잎갈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는 궁궐 후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수종이며, 버드나무는 궁장을 따라 가로수로 식재될 정도로 녹음 기능이 우수한 속성수였다. 복숭아의 경우, 궁중에 올리는 대표적인 과일이었다. 또한 꽃이 아름다운 화관목과 지피류의 식재까지 빼놓지 않음으로써 수확물의 활용이 고려된 종합적인 식생 환경이 모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경모궁의궤』의 경우 식물 소재에 있어『식목실총』과 차이가 있다. 여기에 언급된 수종은 주로 과수 중심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함춘원에서 생산된 수확물이 천신(薦新)을 위한 제물로 활용되거나 진상(進上)하는 용도였다고 전한다.[53]『경모궁의궤』제2권 사전·진상식례(進上式例)에는 궁내를 비롯하여 궁 밖에 위치한 우록(右麓), 월변(越邊), 안산(案山)에 심은 과실을 진상하도록 했는데, 함춘원을 포함한 산지의 수확물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록된 과실은 앵두, 살구[황행, 단행], 복숭아[유월도, 칠월도], 능금, 자두[오얏], 배, 대추, 밤, 연밥 등이다. 별원이 제례 용도뿐만 아니라 궁중의 과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산지(産地)로 운영되었음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또한『경모궁의궤』에는 녹화를 담당한 안산직 외에도 화과(花果)를 파수하는 인원인 '동산직(東山直)'이 거론되어 있다. 함춘원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왕실에 진상되는 용도이기도 했지만, 종묘와 원묘의 제향 때 사용되었으므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했다. 동산직은 이러한 함춘원의 과수를 파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 궁 내외의 각종 과실을 진상할 때 궁 내는 궁사(宮司)가 감독하여 따고 궁 밖의 오른쪽 기슭[右麓]과 월변(越邊)의 빈터는 수복(守僕)과 동산지기[東山直]가 함께 감독하여 따서, 궁사가 간심한 뒤에 봉진(封進)한다. 궁의 안산(案山)에 심은 나무에 달린 과실 및 궁지(宮池)의 연밥[蓮實]도 또한 진상한다. 앵두[櫻桃], 황행(黃杏), 단행(丹杏), 유월도(六月桃), 능금[林檎], 오얏[李實], 배[生梨], 칠월도(七月桃), 대추[棗], 생밤[生栗], 연밥을 진상한다.【철마다 익기를 기다려서,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봉진한다.】(『경모궁의궤』제2권 祀典·進上式例, 한국고전종합DB)

한편『경모궁의궤』에는 함춘원의 녹화와 지맥 보호를 위해 송백(松柏), 과수, 잡목과 같은 수목이 식재되어 울창한 녹지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1885년 푸크가 촬영한 그림 8a의 사진은 그로부터 120여 년이 지난 모습을 보여준다. 사진에서 활엽수가 나목의 상태인 것으로 미루어 촬영 시점은 겨울로 보인다. 그런데 사진 속 함춘원에는『식목실총』에 기록된 다양한 수종은 확인되지 않고, 소나무 중심의 식생 경관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밀식된 송림의 영역이 언덕 정상부를 둘러친 담장을 경계로 안쪽에 위치한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다(그림 8b). 이 담장은 홍화문의 동남쪽 부근에서 빙 둘러 돌아오다가 홍화문의 전면부에서 급하게 방향을 꺾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대로라면 과거에는 홍화문 앞 도로에서 쉽게 조망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사진으로, 일제강점기 함춘원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 9에는 사진 오른편에 담

a: 홍화문 앞 함춘원 전경

b: 함춘원 담장 부분의 확대

그림 8. 1885년 홍화문 건너편 함춘원에 나타난 식생과 담장

자료: George C. Foulk 촬영 사진 부분, 위시콘신대학교 밀워키 캠퍼스 도서관 디지털 콜렉션

그림 9. 일제강점기 함춘원 전경

자료: 국가기록원(관리번호 DET0054527), 성남 나라기록관 제공

그림 10. 영희전[경모궁] 철거 무렵의 배후림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장 일부가 희미하게 식별되며, 푸크의 사진과 마찬가지로 겨울임에도 울창한 숲의 외형이 유지되고 있다. 이 역시 함춘원의 식생을 우점하는 주수종이 소나무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장면이다. 그런가 하면, 함춘원의 북쪽에 위치한 경모궁의 상황도 이와 같았다. 일제강점기 경모궁[영희전]이 철거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10에는 영희전 주변으로 일부 활엽교목의 수형이 확인되지만, 궁묘의 배경림은 대체로 소나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소나무 숲은 함춘원의 수림과 이어져 있었는데, 담장 안쪽의 무성한 수림과 담장 밖의 공터의 대조는 금원의 숲으로 가꿔 온 별원의 전형적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상은 창경궁 함춘원에 한정된 사례가 되겠으나, 도성 내 다른 별원인 창덕궁 상림원과 경희궁 함춘원의 식생도 단순히 잡목으로 방치된 것이 아니라, 소나무 위주의 구성과 실용적 목적에 의한 하부식생의 식재계획이 동반되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물론 정조 때 함춘원 식재공사 전에 민둥산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모든 별원이 일률적으로 관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타의 별원도 한때 녹음수는 물론 앵두, 복숭아, 자두, 대추, 밤 등의 진상을 위한 과수의 생산지로 활용되었을 여지는 충분하며, 실제 경작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 생산이 가능한 왕실 소유의 산지로 잠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왕실 소유의 생산지'라는 별원의 실용적 기능을 고려해 본다면, 별원의 주된 시설물인 담장과 문은 실무적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함춘원의 담장은 목재와 과일의 수확물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계시설이며, 원문(苑門)은 나무 심기와 수확물의 관리를 위해 동산직(東山直), 안산직(案山直), 연직(蓮直), 수직군(守直軍) 등이 드나드는 출입문으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이는『식목실총』에서 11개 조목으로 규정된 별원의 관리지침을 통해 얼마간 추정이 가능하다.『식목실총』에 기록된 별원의 관리 임무는 꽃나무와 과일나무의 접붙이기나 생육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는 안산직과 동산직이 함춘원에 수시로 출입하여 적절한 관리를 해주었음을 방증한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생산지 수호의 소임 역시 매우 비중 있는 업무

로 강조되고 있는데,[54] 이러한 임무를 맡은 솔속(率屬)들은 함춘원의 원문인 유근문과 유첨문을 통해 출입했을 것이다.[55]

5. 고지도에 나타난 궁궐 별원

1) 창경궁 함춘원

조선 후기에 제작된 다수의 한양 도성도는 창경궁 별원의 자리에 '含春苑'을 표기하고 있다. 위치는 한양 동부 숭교방(崇敎坊) 일대로, 창경궁 홍화문과 월근문의 맞은편에 나타난다. 함춘원이 기록된 18세기 중반의 도성도에는 간단히 '함춘원'이라는 명칭을 써놓는 정도로 위치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그림 11a·11b). 그런데 이곳에 수은묘가 들어오고 정조 즉위 직후 경모궁으로 격상된 뒤로 점유 영역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변화가 나타난다(그림 11c). 정조 즉위년(1776) 제작 「도성도」는 그러한 도상이 구현되어 회화적 기법이 동원된 궁묘의 영역이 그려졌다. 다만 함춘원은 없고 경모궁 하나만 그려졌는데, 이는 당해 이루어진 경모궁의 확장 수리 및 개축으로 역할이 모호해진 함춘원의 정체성 약화를 반영한다. 그 밖에 조선시대 도성도와 근대지도를 통해 함춘원의 특징적인 변화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함춘원에 경모궁이 수축된 이후 제작된 도성도에는 경모궁과 함춘원이 독립된 공간으로 표현되어 있다(그림 11d). 지도상 경모궁의 영역은 동서로 긴 형태이고, 그 아래 위치한 함춘원은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를 따라 돌출된 형태를 보인다. 경모궁이 동서로 길쭉한 평면으로 표현된 것은 궁묘의 정당(正堂), 중문, 외문이 동향하도록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함춘원의 경우 별도의 출입문 없이 사방이 막힌 공간으로 묘사된 것이 특징인데, 아직까지 함춘원 내부 공간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함춘원의 출입문은 북서쪽과 서쪽 모퉁이에 유근문과 유첨문 2개가 있었다. 그 안쪽으로는 경모궁과 경계를 구분하는 내장(內墻)이 있어 일첨문을 통해 진입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었다. 이를 두고 『경모궁의궤』에는 안팎으로 설치된 두 겹의 담장을 뜻하는 '내외장원(內外墻垣)'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지도의 제작자들은 금원의 내부를 관찰할 수 없어 외부 담장의 선열과 문의 개수, 위치만을 파악하여, 함춘원을 경모궁 남쪽에 곁달린 시설로 그렸던 것 같다.

둘째, 주지하듯 경모궁은 영조 40년(1764) 북부 순화방(順化坊)에 있던 수은묘를 함춘원 자리로 옮겨온 것이다.[56] 수은묘는 정조 즉위 직후 수리하여 경모궁으로 이름을 바꿨고, 정조 4년(1780) 외장(外墻)을 축조할 때 일첨문, 유첨문, 유근문, 좌액문, 우액문으로 편액된 다섯 문이 조성되었다. 그런데 문헌 기록에는, 경모궁과 함춘원이 남북으로 위치한 도성도의 표현과 달리 담장 하나를 경계로 동서로 양분된 상황이 그려진다. 『경모궁의궤』에서 내부의 구획된 상황을 분석해 보면, 경모궁이 함춘원의 동쪽에 있고 경모궁의 서문인 일첨문을 나서면 곧바로 함춘원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첨문과 유근문이 경모궁의 외문(外門)이자 함춘원의 출입문이었던 것이다. 정조는 매달 한 차례씩 경모궁에 전배(展拜)하러 갈 때 창경궁 월근문(月覲門)을 나서서 유근문(逌覲門)으로 들어갔는데, 일첨문을 지나야만 비로소 경모궁 안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동선은 수은묘를 옮겨올 때 함춘원 동북쪽 일대를 할애하여 부지를 확보했음을 말해주지만, 경모궁의 위상이 강화된 뒤로 양자의 장소성이 역전되어 유현문, 유첨문이 함춘원이 아닌 경모궁의 문으로 전도된 인식도 아울러 보여준다.

> 일첨문은 궁 서쪽에 있다. … 유근문은 함춘원 서북쪽에 있다. … 유첨문은 함춘원의 서쪽 담장에 있다. (『경모궁의궤』 제1권 도설, 한국고전종합DB)

> 함춘원은 … 창경궁에 있는데, 홍화문 동쪽 건너 산기슭이며, 경모궁의 서쪽 담장과 서로 연접했다. 원(苑)의 동쪽은 곧 경모궁의 일첨문(日瞻門)이며, 서쪽은 유첨문(逌瞻門)이라 하고, 북쪽은 유근문(逌覲門)이라 한다. 동북쪽에 좌액문(左掖門)이 있고, 동남쪽엔 우액문(右掖門)이있는데, 모두 정종(正宗) 경자년(1780)에 지은 것이다. (『동국여지비고』 제1권 원유, 한국고전종합DB)

셋째, 현전하는 도성도 중 창경궁 별원이 나타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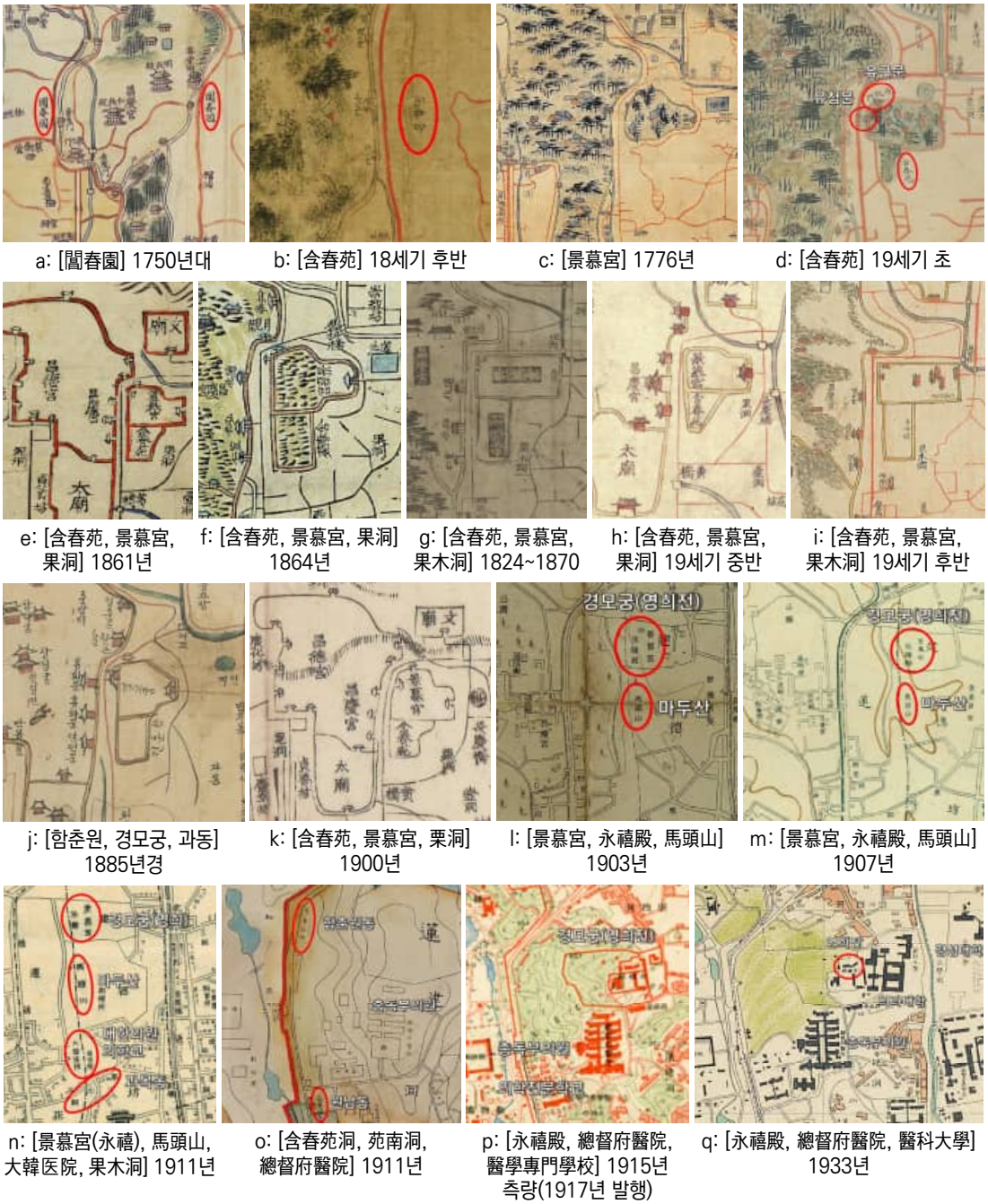

그림 11. 도성도에 나타난 창경궁 함춘원의 표기와 공간 변천 과정

자료: a:『여지도』 도성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09-78). b: 도성대지도(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014165). c. 도성도(서울대 규장각, 古軸4709-3). d: 한양도성도(호암미술관, 허영환 1994, 41). e:『대동여지도』 도성도(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003078). f: 수선전도(서울역사박물관, 서2080). g: 수선총도(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031879). h:『대동방여전도』 한성부 도성도(서울대 규장각, 奎10341-v.2). i:『청구요람』 도성전도(서울대 규장각, 古4709-21A). j: 수선전도(연세대 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2016, 81). k:『대한여지도』 한양경성도(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000282). l: 한국경성전도(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022829). m: 최신경성전도(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015439). n: 용산합병경성시가전도(서울역사박물관, 서3144). o: 경성부시가도(서울역사박물관, 아카이브번호 64961). p. 경성(서울역사박물관, 서7619). q: 경성시가도(서울역사박물관, 서267)

장 이른 지도에는 '함춘원'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지도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여지도·도성도』(1750년대)로, 영조 때 제작된 것이다. 여기서 창덕궁과 창경궁 별원은 모두 간자로 표기된 '창춘원(昌春园)'으로 적혀있다(그림 11a). 창춘원은 조선시대 관찬사료에 나타나지 않는 지명으로, 동시대 북경 황가원림인 '창춘원(暢春園)'과 한자명이 일치하지 않는다. 문창을 뜻하는 창(閶)은 천문을 뜻하는 '창합(閶闔)'의 용례가 전(轉)하여 '궁문'이나 '궐문'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따라서 창춘원은 금원의 의미가 내포된 말로 이해될 수 있으나, 동시대 영조 연간의 기록에서 창덕궁·창경궁의 별원이 상림원과 함춘원으로 분명히 명명되었으므로 난데없이 등장한 창춘원은 의문으로 남는다.

넷째, 그림 11의 지도는 경모궁과 더불어 함춘원이 함께 도시된 것 위주로 제시한 것이다. 일부 도성도는 경모궁만 표시되고 함춘원이 생략되어 있기도 하다. 정조 즉위년(1776년)에 제작된「도성도」(그림 11c)를 보면, '함춘원'이라는 종래의 표기가 사라졌고 경모궁에 흡인된 숲으로 나타난다. 즉, 별원으로서의 정체성이 희석되어 경모궁을 둘러싼 배경림으로 그려진 것이다. 이러한 도상은 1776년 정조가 사도세자에 '장헌'이란 시호를 올리고 수은묘를 '경모궁'으로 승격했던 사실과 관련된다. 전술하였듯, 정조 즉위 훨씬 전부터 함춘원은 방치되다시피 한 상태였고, 인조 때는 방마원이 들어서서 말에게 먹이를 주는 곳으로 운영되는 등 금원으로서의 위상이 현저히 약화된 상황이었다. 그런 이유로 금원의 명분만 있고 소홀히 취급된 함춘원이 경모궁의 건립 뒤로 궁묘 중심으로 장소성을 재편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조 시기 경모궁의 위상 강화사업과 더불어 함춘원도 누차 정비되었으며, 엄연히 경모궁과 담장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기에 이후의 도성도에는 함춘원이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모궁의 위상을 전제로 한 것이었지 함춘원의 실제 영역을 구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례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한양도성도」(그림 11d)에는 경모궁 아래에 담장으로 독립된 공간인 함춘원이 그려졌으나 훨씬 작은 면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경모궁과 함춘원 간의 상대적 면적을 구현했다기보다 두 장소의 위상 차이를 반영한 형태로 여겨진다. 나아가 함춘원이 더 이상 창경궁에 부속된 별원이 아닌 경모궁의 궁묘림으로 전화된 장소성 변화도 읽을 수 있다.

다섯째, 19세기 제작된 도성도에서 함춘원 일대의 지명은 '과동(果洞)' 또는 '과목동(果木洞)'으로 표기되어 있다. 과동은 과실수가 많은 특징 때문에 생긴 이름으로 전해온다. 편제는 동부 건덕방(建德坊)에 소속된 것으로 나오지만, 지도상 위치를 볼 때 숭교방과 접경 지역이었던 것 같고, 아마도 정조 때 경모궁과 함춘원에 다량의 과수가 식재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지명으로 여겨진다. 과동은 18세기 중반『대동여지도』,「수선전도」,『청구도』 등에 뚜렷이 나타나며 1900년대까지 거의 모든 지도에서 함춘원 일대가 '과동[과목동]'을 표기하고 있다(그림 11e-k). 그러나 '과동'은 1911년「용산합병시가전도」(그림 11n)을 끝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는 1914년 단행된 행정구역 개편 때 연화방과 건덕방을 합쳐 연건동으로 부르면 이전 지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섯째, 경모궁과 함께 표현된 함춘원은 1892년 제작「수선전도」(그림 11j)와 1900년 출판된 지도첩인『대한여지도』「한양경성도」(그림 11k)까지 확인된다. 대한제국기인 1903년「한국경성전도」 이후로는 '함춘원' 대신 '마두산(馬頭山)'이란 산명으로 나타나며(그림 11l·11m), 한일병합 뒤로는 그마저도 지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함춘원의 공간 실체가 사라진 뒤로 궁원명이 산명으로 대체된 것이다. 함춘원이 있던 언덕이 종전부터 마두산으로 불렸는지는 확실치 않다. 지도에서 마두산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광무(光武) 11년(1908) 함춘원 자리에 대한의원(大韓醫院)이 개원한 뒤였다. 대한의원은 일제 강점 직후 총독부의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되었고, 1924년경에는 경모궁 자리에 경성제국대학 의과대학이 들어섰다. 그런 경위로, 1903년 제작「한국경성전도」에는 함춘원 대신 '마두산'이란 지명이 표기되는 한편, 경모궁을 '지금의 영희전[景慕宮 今 永禧殿]'이란 주기로써 설명하고 있다(그림 11l).

이상의 과정으로 경모궁은 철거의 수순을 밟았으나[57] 1910년대에 제작된 지도에는 한동안 경모궁의 영역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1n-p). 실체가 사라진 함춘원의 경우, 1911년 지도에 '함춘원동' 또는 '원남동'이란 동명으로 한동안 기념되기도 했으며(그림 11j), 1914년 이후 연건동으로 바뀌면서 함춘원에 관한 지명은 사라지게 되었다.

일곱째, 「한국경성전도」와 「최신경성전도」에 보이는 또 다른 정보는 마두산 정상부 등고선을 따라 개설된 소로(小路)이다(그림 11l·11m). 이 도로가 과거부터 있던 것인지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필자의 판단에 경모궁과 함춘원의 서쪽 담장 밖에 접해있던 이면도로였던 것 같다. 그것이 함춘원이 사라진 뒤에 신설된 것이든 아니면 전부터 사용되던 길이든, 함춘원 담장의 위치와 서편 영역의 경계를 파악하는 표지로 삼을 수 있다. 한편으로 1915년 측량 「경성도」에는 창경궁 함춘원의 담장으로 추정되는 선형까지 나타난다. 지도상 총독부의원 주변으로 굵은 점선으로 표시된 기호가 군데군데 끊어진 채로 표시되어 있는데(그림 11p), 범례에서 해당 기호에 대한 설명은 '土堤又ハ土圍'이다. 따라서 지도에 표기된 흙담[土墻]은 잔존하고 있는 함춘원의 담장일 가능성이 크다. 지도에서 이 담장은 총덕부의원 외곽의 절반가량을 둘러싸고 있고, 건물 남서쪽, 남동쪽과 서쪽에도 함춘원의 본래 영역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담장이 파편적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그중에서 건물 남서쪽 부근에 직선으로 이어지는 담장의 선형은 그림 8과 그림 9의 사진에 나타난 담장의 위치와 근사하여 상호 비교해 함춘원의 경계를 파악할 수 있다.

2) 경희궁 함춘원[상림원]

도성도에 표현된 경희궁의 별원은 개양문(開陽門) 남쪽에 담장으로 둘러친 영역으로 나타난다. 간혹 담장 없이 명칭만 기입되거나 숲, 산지의 형태로 묘사된 것도 있는데, 궁궐, 종묘, 사직 등 왕실의 시설과 동일하게 선형의 담장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재된 별원명은 대다수가 '上林苑'으로 표기되어 있고, 일부 지도에는 '含春院', '含春園'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명칭의 불일치가 발생한 이유를 추정하자면, 함춘원뿐만 아니라 상림원이 당대인에게 익숙하게 명명된 금원의 이름이었을 가능성과 함께 선행 지도를 참조하면서 '상림원'의 표기가 그대로 전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도성도를 제작 시기에 따라 펼쳐놓고 별원명의 시계열적인 변화상을 귀납해 가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그림 12는 개양문 남쪽에 별원이 표현된 것 위주로 선별된 조선 후기의 도성도이다. 여기서 경희궁 별원의 명칭은 대부분 '上林苑'으로 적혀있지만, 경희궁 별원이 표기된 가장 이른 시기의 지도인 영조 연간『여지도·도성도』(1750년대)에는 상림원이 아닌 '含春院'으로 표기되어 있다(그림 12a). 이 지도는 경희궁 별원의 명칭이 함춘원으로 시작되었음을 방증해 주지만, 함춘원의 후부지명소가 '苑'이 아닌 '院'으로 적혀있는 점이 특이하다. 별원의 형식적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苑'과 '院'은 의미가 서로 소통된다. 원(院)은 '담장', '뜰', '정원' 등의 의미로 통용되며, 담장을 두른 궁실이나 관아(官衙), 관서(官署)를 뜻하기도 한다. 다른 이명인 방림원(芳林院)에도 '院'의 지명소가 있는데, 담장으로 구획된 왕실의 '영역', '뜰'의 의미로서 '院'이라 했거나, 전담 '관청'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함춘원'으로 표기된 다른 지도를 찾아보면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도성도」와 1890년대 제작 「도성도」 두 가지가 있다(그림 12k·12l). 이 두 지도는 채색과 지형의 표현기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담고 있는 지리정보가 대동소이하다. 공통적으로 정동 부근에 아국부(俄國府), 미국부(美國府), 영국부(英國府) 등 신설된 외국 공사관이 표기되어 있고, 경운궁의 자리는 비어있다. 따라서 지도의 제작 시기는 1885년 이후로 가늠되며, 기존의 도성도에 비해 지리정보가 갱신된 만큼 '함춘원'도 실제 통용된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도에서 경희궁 남쪽 새문안로 건너편에는 담장의 표현 없이 점묘법으로 표현된 숲이 나타나며, 그 위로 '含春園'이 적혀있다. 조선시대 관찬사료에는 '含春院'이나 '含春園' 보다 '含春苑'으로 기재된 것이 대부분이다(표 2).

경희궁의 별원명이 창경궁 함춘원의 전형을 따른

a: [含春院] 1750년대, 『여지도』 수록 도성도
b: [上林苑] 1780년대, 도성도
c: [上林苑] 18세기 후반
d: [上林苑] 1824~1870, 수선총도
e: [上林苑] 1861, 수선전도
f: [上林苑] 1861, 『대동여지도』 도성도
g: [上林苑] 19세기 중반, 대동방여전도
h: [上林苑] 19세기 중반, 조선경성도
i: [上林苑] 19세기, 경조전도
j: [샹님원] 1892, 슈션젼도
k: [含春園] 19세기 말, 도성도
l: [含春園] 1890년대 한양도성도
m: 1900, 『대한여지도』 한양경성도
n: 1900년대 초, 한양경성도
o: 1902, MAP OF SEOUL
p: 1908, 『신정분도 대한제국지도』 경성도

그림 12. 도성도에 나타난 경희궁 별원의 형태와 표기

자료: a: 『여지도』 도성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09-78). b: 도성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軸4709-3). c: 도성대지도(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014165). d: 수선총도(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031879). e: 수선전도(서울역사박물관, 서2080). f: 『대동여지도』 도성도(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003078). g: 『대동방여전도』 한성부 도성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341-v.2). h: 조선경성도(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2016, 75). i: 경조전도(미국의회도서관, gm71005218). j: 수선전도(연세대 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2016, 80). k: 도성도(프랑스국립도서관; 서울역사박물관 2016, 90). l: 도성도(개인소장, 서울역사박물관 2016, 91). m: 한양경성도(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000282). n: 한양경성도(개인소장, 허영환 1994, 85). o: MAP OF SEOUL(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 서울역사박물관 2016, 99). p: 『신정분도대한제국지도』 경성도(서울역사박물관, 서2770)

표 2. 관찬사료에 기록된 궁원명의 기재 횟수

구분	上林園	上林苑	上林院	尙林苑	含春苑	含春園	含春院
조선왕조실록	66	14	3	2	21	-	3
승정원일기	2	38	-	-	181	3	3
일성록	-	6	-	-	16	-	-

자료: 한국고전종합DB 검색

것은 앞서 지적하였다. '苑'이 원유와 금원을 뜻하는 보편적인 지명소이기 때문에 함춘원의 한자명은 '苑'으로 명명하거나 관서명으로 표시한『여지도』의 사례와 같이 후부지명소 '院'을 사용해야 할 것이나, 이 두 지도에는 '園'으로 표기되어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오기였다기보다 19세기 말 경희궁의 훼철로 인해 부속 별원 함춘원의 장소성이 약화된 시점의 인식으로 판단된다. 널리 알려져 있듯, 러시아공사관은 함춘원의 자리에 입주하였다. 그로 인해 함춘원은 더 이상 왕실의 궁원이 아닌 '아관'이 점유한 동산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위 지도에 나타난 '園'은 러시아공사관에 매각된 이후 땅의 정체성 변화가 반영된 지명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한편 도성도에서 대다수의 지명으로 거론된 '상림원' 표기는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2종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도성도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12b·12c). 이 지도에서 별원의 영역 표현은 나타나지 않으며 개양문 동남쪽에 '上林苑'을 기입하여 대략적인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표현은 개양문을 기준으로 실제 함춘원의 위치와 근사하므로, 상대적 위치를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지도에 간단히 별원명을 기입하는 표현 방식은 위에서 분석한 창경궁 함춘원의 사례와 같이, 19세기에 들어와서 '평면 형태를 가진 영역' 그리고 '담장의 선형'으로 전개된다. 다만 표기된 '상림원'은 선행 지도에 기록된 지리정보가 답습된 것이며, 이후로는 필사 과정에서 고착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 같은 상림원의 표기는 1892년 제작된「수선전도」 이후로 발견되지 않는다(그림 12j). 「신정분도대한제국지도·경기지도」(1908)에 삽입된「경성도」에 '상림원'의 주기가 나타나지만, 과거의 지도를 참작한 것일 뿐 이때까지 상림원의 지형인식이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림 12p). 1900년 이후에 제작된「경성도」를 보면, 경희궁 별원의 자리에 상림원이나 함춘원으로 쓴 글씨는 없고, 그 자리에 각국 공사관이 들어서 있는 것이 확인된다(그림 12m~o). 이러한 점은 정동 일대에 외국 공사관 특히 러시아공사관이 입주할 무렵 함춘원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또한 공사관이 별원의 부지에 건립된 사정을 말해준다.

우선 1900년 제작「대한여지도」를 보면, 경희궁 남쪽에 아공서(俄公署), 미공서(美公署), 총세무사(摠稅務司), 영영사(英領事) 등이 자리 잡고 있다(그림 12m). 아직 경운궁은 지도에 보이지 않으며, 각국 공사관은 사상선법으로 표현된 돌출된 지형 주위에 표기되어 있다. 이 지형은 불과 몇 년 전의 지도인 1890년대의 도성도에서 산형이나 수림으로 표현되어 있던 곳이었다.「대한여지도」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어 유사한 지리정보를 보여주는「한양경성도」(1900년경)에는 미국 공사관과 해관(海官)으로 불렸던 세관기지 남쪽에 비로소 경운궁의 영역이 나타나며, 선원전은 건립되지 않은 상황이다(그림 12n). 그러던 것이 1902년 출판「MAP OF SEOUL」에 와서는 경운궁과 선원전이 모두 그려진 상태로 나타난다(그림 12o). 이 지도에서 흥미롭게 관찰되는 부분은 '아관(俄館)'과 미관(美館)이 표기된 지점 위에 그려 넣은 3개의 작은 봉우리이다. 바로 경희궁의 별원이 있던 구릉지가 표현된 것인데, 별원의 지형 실체는 사라졌으나 과거의 도성도에 기록된 상림원의 형태가 굴곡진 동산의 표현을 통해 흔적을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 한양 도성도에서 경희궁 별원은 '상림원', '함춘원'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담장, 숲, 동산 등으로 묘사되었으나, 19세기 말부터 장소성이 퇴조하기 시작했

고, 경운궁의 건설 전후로는 지형의 자취만 표현된 점이 확인된다. 사실 경희궁 함춘원의 장소성이 상실된 된 발단은 경복궁 중건을 위해 경희궁의 전각을 헐어와 건축 부재로 사용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이때 경희궁 궁역 대부분이 공터로 변하여 뽕나무를 기르는 농지로 전용되었는데, 궁궐의 기능을 상실한 공궐(空闕)에 별원의 존재는 불필요했을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문헌사료와 고지도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궁궐 별원의 조영·정비 사실, 성격, 기능, 명칭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궁궐 별원의 이론을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궁궐 별원은 대내후원과 대별되는 궁궐 밖의 원유로서, 궁장과 인접한 동산에 담장을 둘러쌓아 외인들의 출입과 조망을 통제한 금원으로 정의된다. 별원은 국초 경복궁과 창덕궁의 창건기에는 고려되지 않은 원유 형식이었으나 궁궐의 확장과 이궁의 건설 과정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성종 때 창경궁이 창건될 때, 궁궐 밖의 구릉지에서 대내를 조망하는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담장을 설치하여 외인들의 출입을 막은 것에서 비롯된다. 또한 창덕궁 서쪽 궁장 밖 언덕에 별원으로 설치된 상림원은 조성시기가 분명치 않으나 광해군 때의 기록에 잠시 등장하며 효종 연간 수리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창경궁 함춘원과 비슷한 시기에 창설된 것으로 보인다. 경희궁 별원 함춘원은 광해군 때 경덕궁이 창건되면서 개양문 밖 언덕에 신설되었는데, 이는 선행 별원의 제도 곧 '함춘·상림지제(含春上林之制)'를 모델로 삼아 만들어진 것이었다. 고종 연간에는 경복궁 중건 직후 선대 별원의 전례에 따라 지금의 정독도서관이 있는 동산에 함춘원이 조성되어 '신경현 함춘원', '맹현 함춘원', '북부 함춘원' 등으로 불렀다. 이처럼 조선 말에 이르러 법궁과 이궁 모두에 별원이 부속되었던 사실에서, 별원은 궁궐 운영상 보편적이고 지속적 개념으로 형성된 '도성 원유 제도'로 볼 수 있다.

둘째, 별원을 조성해야만 했던 필요와 목적은 왕실의 유락이나 휴양과 무관하게 궁궐 내 생활공간의 차폐가 주요했다. 한때 연산군이 후원과 함춘원을 넘어 동소문에 이르는 공간을 담장으로 막아 유희의 장으로 개조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그 시기가 짧고 이례적인 사건일 뿐이었다. 또한 별원이 위치한 지역은 궁궐의 풍수적 국면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형이었기에 금역으로 관리되는 조치가 수반되었다. 창경궁 함춘원은 궁궐의 청룡맥 또는 안산으로 본 기록이 전해지며, 경덕궁 함춘원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궁궐을 길지로 만드는 지형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별원은 '궁궐 임압 지형' 또는 궁궐 '내맥'에 설치된 보호지역의 역할을 했지만 운영과정에서 생산지의 역할도 담당했다. 특히 정조 즉위년에 경모궁과 함께 정비된 창경궁 함춘원의 경우, 녹음수, 유실수, 화관목과 지피류 등 종합적인 식생으로 이루어진 수림이 조성되었는데, 경모궁과 함춘원에서 수확된 과일은 큰 제사에 천신하거나 왕실에 진상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셋째, 문헌사료에 나타난 궁궐 별원의 이름은 함춘원이 다수를 차지하며, 상림원, 서원, 방림원 등 같은 이명들도 발견된다. 상림원은 궁궐 후원을 관리하는 관서명에서 후원의 별칭으로 전용되었으며, 언제부턴가 창덕궁의 별원명으로 사용되었다. 후원과 더불어 별원이 상림원으로 불리게 된 것은 명칭을 통해 금원의 속성을 전달하려 했던 의도로 파악된다. 후원과 별원이 상림원이라는 이름을 공유하게 된 뒤로, 상림원은 함춘원과 더불어 보편적인 별원의 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경희궁 별원이 다수의 도성도에서 상림원으로 표기된 것은 '별원이 곧 상림원과 같은 금원'이라는 관습이 반영된 도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함춘원은 창경궁과 경희궁의 별원명으로 시작하여, 18세기 중반부터 도성 별원 전체를 통칭하는 보편적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경복궁의 중건 직후 동쪽 언덕에 만들어진 별원의 이름이 함춘원이었던 것은 별원을 뜻하는 상용적 이름으로 '함춘원'이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그런가 하면, 숙종 연간『어제궁궐지』에서 경희궁 별원명은 방림원으로 나타난다. 이를 볼 때, 17세기 후반 무렵 경희궁 별원의 공식적인 지명은 방림원이었

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후대의 자료에서 여전히 함춘원이나 상림원의 사용이 대다수이기도 하여 방림원은 한때 경희궁 별원을 불렀던 이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 궁궐 별원명으로 사용된 상림원, 방림원, 서원은 그 기원이 고대 중국에 실존했던 제왕의 원유로서, 조선시대 군왕이 소유한 어원의 이상적 모델을 표방한 것이었다. 반면 함춘원은 고대 중국의 원유명과 상관없이 조선에서 처음으로 궁궐 별원에 사용된 이름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넷째, 고지도에 나타난 궁궐 별원은 명칭만 기입되거나 환형의 담장 또는 숲으로 표현된 특징이 있다. 별원의 영역에 표시된 담장은 궁궐, 종묘, 사직 등 왕실의 시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창경궁 함춘원은 18세기 도성도에서 명칭만 적혀있으나 1776년 경모궁의 위상 강화 사업 뒤로 평면 영역으로 표현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대체로 경모궁 아래에 작은 면적으로 그려지거나, 출입문 없이 경모궁의 영역에 흡인된 숲으로 묘사되는데, 이러한 도상은 함춘원이 창경궁에 부속된 별원이 아닌 궁묘의 배경림으로 인식된 정체성 변동을 반영한다. 한편 함춘원에 다량의 과목이 식재된 것과 연관하여, 고지도에는 함춘원 주변에 '과동(果洞)' 또는 '과목동(果木洞)' 지명이 나타나며, 대한의원에 이은 조선총독부병원의 설립 이후 창경궁 함춘원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경희궁 함춘원의 경우, 고지도에서 담장으로 둘러싸인 영역으로 표시되어 궁원의 속성이 전달되고 있으나 기입된 지명은 대부분 함춘원이 아닌 '上林苑'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상림원이 당대인에게 익숙하게 명명된 궁원의 이름이었을 가능성과 함께 선행 지도에 기록된 지리정보가 답습된 결과로 보이며, 이후로는 필사 과정에서 고착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편 본 연구는 일부 지도에 표기된 '含春院', '含春園'의 후부 지명소 문제를 지도의 제작 시기와 연관하여 설명하였다. '含春院'은 이명인 '芳林院'과 마찬가지로, 18세기 중반 이후 경희궁의 임어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이곳을 왕실의 동산이나 담장의 영역으로 본 인식이 반영된 이름이거나 한때 관청의 유형으로 보았던 정황으로 보았다. '含春園'의 경우, 1885년 함춘원이 러시아에 매각되어 별원으로서의 장소성이 현저히 약화된 시점의 인식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조선의 왕실이 궁궐을 건설·확장·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별원이 조선 후기에 정형화된 규범으로 성립되어 있었음을 고찰해 보았다. 별원은 궁궐이 풍수설에 의해 배후와 양측이 산지로 가로막힌 곳을 택하여 입지함으로써 발생한 높은 지형의 처리 방법으로 고안된 시설이었다. 최초 설립 당시부터 금원의 위상으로 조성되었기에 담장으로 막아 민간의 출입이 통제된 금원의 형식을 따랐으며, 내부는 녹음을 유지하되 각종 과수의 생산지로 운영된 특징이 있다.

그 같은 궁원으로서의 외적 특징에 더하여, 별원의 내적 특성을 대별해 보면 종속성, 보편성, 고유성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사료에서 대내후원과 별원 양자가 양원(兩苑) 체계를 이루었다고 볼 만큼 별원이 비중 있는 시설로 나타나지는 않는 점이 지적된다. 별원은 왕실의 생활공간을 차폐하는 보조적 시설로 조성되었으나 이후 금원에 준하는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못했고 심지어 궁궐의 존폐에 따라 가변적인 성격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따지고 보면 별원은 궁궐의 운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종속적 관계를 벗어나 독립적 지위를 갖기 어려웠다. 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경운궁을 제외한 여타 궁궐의 기능이 크게 약화 될 무렵 모든 별원이 차례로 매각·양도되었던 사실에서 입증된다. 예컨대 가장 먼저 사라진 경희궁 함춘원은 1885년 러시아정부에 2,200달러에 매각되어 공사관 신관 건립 부지로 전용되었다. 경모궁의 궁역에 흡수되어 한차례 정체성 변동을 거쳤던 창경궁 함춘원의 경우, 1907년 대한의원이 건립된 뒤로 병원 부지로 사용되면서 공간의 실체가 사라졌다. 그 무렵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던 경복궁 함춘원도 친일 내각의 총리대신으로 국권피탈에 앞장섰던 박제순이 고종에게 하사받았다고 주장하여 소유권이 넘어감으로써 모든 궁궐 별원은 역사에서 종적을 감추게 되었다. 이처럼 궁궐 기능의 상실로 인해 별원이 불용지로 전락되고 얼마 뒤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사실은 그것이

본궐과의 관련성을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는 '종속적 성격'을 가졌음을 대변해 준다.

나아가 별원은 조선 후기 모든 궁궐에 설치되어 있을 만큼 '보편성을 가진 궁원의 형식'이었다. 별원 조성의 동기는 궁궐 입지의 준거로 삼은 전통적 터잡기 방식으로 인해 '궁궐을 임압하는 지형'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별원은 이러한 지형을 궁원으로 개조한 적극적인 대응방식이었고 실용적 산림으로 가꿔진 점에서, 궁궐의 운용 방식과 도성의 원유체계를 재음미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다. 비록 궁실 건축의 이론과 같이 강한 계획개념이 동반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랜 궁궐 운영으로 형성된 별원의 형식은 궁궐 간의 임의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전형적인 방식으로 집적되어 있었다. 또한 이러한 궁원의 형식은 중국과 일본의 궁궐은 물론 고려 이전의 왕조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고유한 특질'을 지닌다. 바로, 도성 원유체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조선시대 궁궐 별원의 가치를 제고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

註

1) 본 논문의 제목에서 '궁궐 별원', '함춘원'의 두 용어는 '별원=함춘원'이라는 등가관계로서 나열된 것이다. 여기서 '함춘원'은 실재했던 창경궁 별원을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말에 이르러 모든 궁궐 별원을 '함춘원'으로 통칭했던 현상 즉, 왕실의 관습적 별원 제도로 나타난 '함춘원제(含春苑制)'를 의미한다. 이의 시초적 인식은 광해군 연간에 별원을 하나의 왕실 공간의 제도로서 언급한 '상림함춘지제'에서 확인되며, 19세기 중반 『한경지략』, 『동국여지비고』에서 모든 궁궐 부속 별원을 '함춘원'이라는 통일된 원유의 유형으로 기술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에 별원이 궁궐에 부속된 개별적 궁원으로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함춘원이라는 하나의 이름과 개념으로 발전한 양상을 제목에 반영하였다.
2) 창경궁 함춘원의 연혁은『서울六百年史』(1987)에 상술되어 있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7).
3) 별원이 독립적으로 성립되지 못하고 한 궁궐에 종속된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은 경희궁의 해체 과정을 보면 잘 드러난다. 경희궁은 19세기 중엽 경복궁 중건을 위해 대부분의 전각이 뜯겨나가 공터로 변하면서 사실상 궁궐의 지위를 상실했다. 얼마 뒤 1885년 부속 별원으로 존재하던 개양문 밖 함춘원은 조선 정부의 권유로 공사관 부지를 찾던 러시아에 매각되었는데, 이는 폐궁과 동시에 부속 별원도 불용지로 전락했던 사례로 간주된다(정우진 등 2022, 28).
4) 이 시는 중종 33년(1538) 3월 26일 중종이 입시한 신하들에게 '함춘원'을 칠언율시로, '상원눈록(上苑嫩綠)', '상림홍도(上林紅桃)'를 오언율시로 각각 지어 바치게 했을 때 수석을 차지한 작품이다. 세 시문 모두 신광한의 문집『기재집(企齋集)』에 수록되어 있다. 함춘원과 더불어 시제로 제시된 '상원', '상림'은 모두 금원을 의미한다.
5) 『고려사』에서 궁원을 일컬어 상림원으로 명명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고려시대 궁원의 동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내원서(內園署)의 관명으로 '상림령(上林令)'이 존재했던 것이 확인되어 미약하게나마 연관성을 추정해 볼 뿐이다. 단 한 건에 지나지 않지만, 고려시대의 문헌에서 유의미한 기록이 나타난다. 살펴보고자 하는 기록은, 이색의 시문집『목은시고(牧隱詩藁)』에 수록된 「몽회(夢廻)」라는 시이다. 시문 중에서 관련된 부분은 "우선 동창을 향하여 귀연이나 배우다가[且向東窓學龜噞], 장차 '상원(上苑)'의 꾀꼬리 소리를 꼭 들으련다[行當上苑聽鶯歌]"에 쓰인 '상원'이란 표현이다. 상원은 '주상(主上)의' 또는 '최고 높은 지위의' 원유를 달리 부르는 말로 보이며, 글의 맥락상 후원이나 금원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림원'을 줄여서 '상원'이라고 불렀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상적 용례로 보기는 어려워 고려시대 궁원명으로서 상림원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상림원을 궁원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6) 『태조실록』 3년 7월 11일(戊申)
7) 『문종실록』 1년 11월 27일(辛酉)
8) 『태종실록』 6년 9월 26일(壬午)
9) 『세종실록』 10년 3월 10일(壬辰)
10) 『세종실록』 12년 1월 15일(戊午)
11) 『승정원일기』 영조 1년 10월 19일(癸未)
12) 창경궁 함춘원의 존재로 인해 동궐 양편에 위치한 별원이 각각 동원과 서원으로 불렸을 가능성도 있으나, 창경궁 함춘원이 동원으로 불렸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13) 오준영(2019)은 각종 지리지에서 각 궁궐 '외원'이 '함춘원'이라는 항목 아래 별도의 위치 정보로 구분된 것에서 함춘원이 궁궐 '외원'을 포괄하는 보통명사처럼 사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14) 含春苑 在慶熙宮之開陽門外南岸, 繞以周垣, 樹木蔚密. 又昌慶宮弘化門外東岸有苑, 亦命含春苑.
15) 같은 내용이 고종 연간『대전회통』공부 영선조에 기재되어 있다.
16) "是年起太極諸殿, 築總章觀, 高十餘丈, 建翔鳳於其上, 又於芳林園中起陂池, 楫櫂越歌." (『三國志』 권3 魏書 明帝記, 三年春 正月戊子(魏略))
17) 『通鑑節要』 卷之三十四 隋紀煬皇帝[乙丑]大業元年
18) 남송의 문인 진관(秦觀)의 시 「춘일(春日)」 중 "有情芍藥

含春淚(다정한 작약은 봄의 눈물 머금고), 無力薔微臥曉枝(힘없는 장미꽃은 새벽 가지에 누워 있구나)”라는 구절이 유명했다.

19) 『세조실록』 9년 2월 7일(丙寅)

20) 별원이 조성된 시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민가가 궁궐을 ‘임압(臨壓)’ ‘압박(壓迫)’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임압은 풍수지리에서 분묘·건물·산록(山麓) 등이 양택이나 음택의 기반이 되는 지형의 혈맥을 위에서 덮어 누르는 형국(形局)을 말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사용된 임압의 용례는 주로 높은 지형이나 집, 불당, 간의대 등의 건축물이 평지에 있는 궁궐을 내려다보고 있어 기를 억누르는 상태를 형용할 때 나타나며, 민간의 가사가 궁궐 곁의 산등성이에 있을 경우 ‘임압가(臨壓家)’로 규정되어 철거 대상이 되기도 했다.

21) 『성종실록』 7년 5월 3일(乙巳)

22) 『성종실록』 12년 1월 27일(壬寅)

23) 『성종실록』 24년 2월 27일(壬戌)

24) 『성종실록』 24년 3월 5일(庚午)

25) 연산군이 후원의 노출을 꺼려 방비한 기록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궁궐 담장 밖의 인가가 많이 후원을 내려다보니, 도총부에서 화약고까지 궁궐 담장을 고쳐 쌓아서 높게 하라.(『연산군일기』 3년 1월 4일(丙午))”; “광지문 밖의 경비하는 곳이 후원을 내려다보게 되고, 너무 문에 가까워서, 파수 숙직하는 군사가 들여다보는 폐단이 있으니, 영을 낮은 곳으로 물려서 문을 바라보게만 하면 가하다.(『연산군일기』 3년 5월 23일(甲子))”; “후원에 혹 진연할 적이면 배고개[梨古介]에 왕래하는 사람이 모두 본다. 때문에 성종조 때 진연할 적엔, 매번 장막을 쳐서 가리었던 것이니, 배고개를 막아 왕래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다.(『연산군일기』 5년 2월 21일(辛亥))”; “군기시·자문감 남문과 도총부의 서문을 모두 닫아 출입하지 못하게 하며, 자문감에서 서쪽으로 도총부까지와 위장소 북소(北所)에서 북쪽으로 요금문까지 높이 담을 쌓아 후원을 환하게 들여다볼 수 없게 하되, 지금은 한창 추울 때이니, 우선 울타리를 치라.(『연산군일기』 9년 11월 11일(甲戌))”; “성균관 서재(西齋) 바깥 쪽에 방화벽(防火壁)을 쌓으라고 하였다. 왕이 날마다 여러 희첩들과 후원에서 잔치 놀이하며 유생들이 엿보는 것을 싫어하여 이 전교가 있은 것이다.(『연산군일기』 10년 5월 11일(庚子))”; “후원에 큰 차일을 배설할 때, 후원의 유연하는 곳에는 늘 장막을 쳐 두어 비가 내려도 걷지 말고, 썩어서 파손되면 고치라.(『연산군일기』 10년 갑자 9월 7일(甲午))”

26) 『연산군일기』 3년 1월 4일(丙午)

27) 『연산군일기』 3년 5월 18일(己未)

28) 『연산군일기』 9년 11월 5일(戊辰)

29) 『연산군일기』 5년 2월 26일(丙辰)

30) 『연산군일기』 10년 7월 10일(戊戌); 10년 8월 28일(乙酉)

31) 『연산군일기』 10년 7월 23일(辛亥)

32) 『연산군일기』 12년 5월 17일(丙申)

33) 『중종실록』 1년 10월 9일(甲寅)

34) 명종 때에는 함춘원 안에 잡인이 들어와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자 격쟁(擊錚)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담장이 방치되어 일반인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 (『명종실록』 19년 1월 15일(己丑))

35) 『선조실록』 26년 4월 18일(壬寅)

36) 『선조실록』 36년 3월 18일(甲戌)

37) “함춘원은 홍화문 동쪽에 있다. 인조조에 그 반을 떼서 태복(太僕)에 주어 말을 방목하는 장소로 삼았다.[含春苑在弘化門東. 仁祖朝割給其半太僕, 俾作放馬之場]” (『어제궁궐지』)

38) “근래 함춘원 안에 녹음이 울창하지 않은 때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하고 마장(馬場) 안에 북쪽으로 돗자리가 깔려 있기에 내심 몹시 괴이하고 의아하게 여기며 ‘담장을 보수하지 않은 탓에 잡인들이 왕래하게 되었으니, 일의 체모가 온당하지 못하다.” (『승정원일기』 영조 8년 5월 17일(癸酉))

39) “상림원은 만수전과 서로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에 담을 수축하려 한 적이 있으나 폐해가 있을까 걱정하시는 자전(慈殿)의 하교를 우러러 받들어 지금까지 수축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보니 여염 사람들이 마치 제집처럼 멋대로 드나든다. 이는 출입하는 자의 죄가 아니라 실로 진작 수축하지 않아 이렇게 된 것으로, 일의 체모로 보아 매우 온당치 않다. 병조에 분부하여 상림원의 담장을 즉시 수축하게 하고, 함춘원과 의춘원(宜春苑) 등의 무너진 곳도 전부 수축하게 한 뒤에 적간하게 하라.”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6월 10일(丁卯))

40) 『효종실록』 8년 2월 16일(己丑), 18일(辛卯)

41) 탈초본 승정원일기에서 해당 기사 원문은 ‘環墻名苑矣’으로 적혀있으나, ‘名’이 아닌 ‘各’으로 이해해야 좀 더 의미가 자연스럽다.

42) 『승정원일기』 영조 8년 8월 4일(丙午)

43)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https://www.nl.go.kr/newspaper/) 검색

44) 경복궁 함춘원은 아관망명(1896년) 이후 고종이 정동 일대에 정치적 근거지를 마련한 뒤로 그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 대한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1908년에 일본인 內田良平이 북부 함춘원의 부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세웠다고 한다. 1910년에는 을사오적의 중심인물이었던 박제순이 장원서의 혁파 당시(1882년) 함춘원을 고종에게 하사받은 칙교(勅敎)가 있다고 주장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었으나 결국 박제순이 그 땅을 차지하였다(『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21일; 1909년 2월 4일; 1910년 4월 6일).

45) “풍수학에서 아뢰기를, “경복궁은 백호가 높고 험준하나, 청룡이 낮고 미약하므로 가각고(架閣庫) 북쪽 산의 내려온 맥에 소나무를 심어 길렀는데, 근년에 벌레가 먹어서

반이 넘게 말라 죽었으며, 그 마르지 않은 것도 근방의 무식한 무리가 가지와 줄기를 베어 쳤고, 혹 맥혈(脈穴)을 파고서 집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청룡이 날로 더욱 쇠약하여지니, 청컨대 표를 세워서 한계를 정하고 소나무를 심어서 산맥을 비보하게 하소서"하니, 예조와 한성부의 풍수학에게 명하여, 함께 살펴서 표를 세우게 하였다." (『문종실록』 1년 4월 18일(丙戌))

46) 光海治慶德宮, 公所居園, 與宮墻相連, 公意惡其偪側. 縮其垣限而小之, 光海取以名含春苑.

47) 그밖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참조된다. "상림원의 모래 언덕은 예부터 땅을 파는 것을 경계했던 곳인데 근래 기강이 해이해져 임의로 땅을 파서 거의 평지가 되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이다.(『승정원일기』 영조 1년 을사(1725) 2월 9일(丁丑))"; "마동산(馬東山)과 함춘원은 모두 좌청룡에 해당하니 흙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승정원일기』 영조 6년 4월 25일(癸亥))"

48) 안산직은 경모궁 주변 산록을 녹화하면서 수목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민간의 벌목을 감시하는 임무로서, 어영청 아병(牙兵) 1인이 전담하여 맡았다.

49) 『승정원일기』 인조 24년 9월 1(甲辰)

50) 『경모궁의궤』에서 나무를 심은 일을 기록한「식목설(植木說)」을 살펴보면 경모궁 초창 당시 심었던 꽃과 과실나무, 잡목이 도합 1076여 그루가 있었고, 꽃과 과실나무, 잡목 합하여 1220그루를 새로 심었다고 전한다. 또한 궁 밖 오른쪽 산록에 2617그루, 외안산에 9738그루, 함춘원에 2014그루, 유근문 밖에 1286그루 등 식재된 수목의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이후 상시 식재를 담당한 인부는 영역을 나누어 투입되었는데, 훈국장교(訓局將校) 2인, 훈련도감과 금위영 교졸(校卒), 어영청 장교 등이 전담하여 관장했다.

51) 宮外形勝蕪翳不治, 因其突者修之, 爲襟爲抱, 因其窪者疏之, 爲池爲渠, 因渠之曲折, 跨以爲橋. 旣又自宮內苑囿以及四山之迤邐環揖者, 盛植松杉楓樟梅杏桃柳嘉花藂艸之屬, 幽陰綿亘, 蒼翠交暎, 然後昔之廣漠者, 至是繁華, 昔之蕪翳者, 至是葱蒨, 而廟貌益深嚴矣.

52) 기록된 '장(樟)'의 수종 구분이 모호하나 '예장(豫樟)'이 좋은 재목을 뜻하는 점에서 재목의 일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3) 『경모궁의궤』 제2권 사전(祀典)·천신의(薦新儀)에는 제례에 쓰일 앵두, 살구, 능금, 배, 대추, 생밤 등의 과일을 장원서에서 담당하고, 곡식은 적전, 채소는 사포서, 얼음은 빙고, 어물 및 특산물은 각 도에서 맡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함춘원에서 수확한 과수는 천신을 위한 제물로 활용하는 한편 임금께 진상하는 용도였다고 전한다.

54) 동산직, 산직, 종 등에게 부여된 보호관리의 임무에 관한 조목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 궁 바깥의 오른편 기슭이나 그 너머 공터에는 예부터 꽃나무와 과일나무 그리고 잡목 등이 있으니 잘 보호하되, 동산지기는 전과 같이 소임을 다하고, 궁사는 때때로 돌보아 각별히 관리할 것이다. … 6조 : 진상할 때에 지키는 종이나 동산지기는 이전의 관례대로 행할 것이다. 7조: 안산(案山)에 나무를 심는 것은 어영청(御營廳)이 담당하며, 나무를 심은 후에는 산지기를 정하여 각별히 수호한다. 과일나무도 또한 마찬가지다. 과일을 진상할 때에는 그 결실을 기다려 지키는 종과 산지기가 보아 가려 따고 궁사가 자세히 살펴보아[看審] 진상할 것이다."(『식목실총』, 번역 참조: 이선 2006)

55) 경희궁 함춘원에도 개양문 쪽으로 소로(小路)와 문이 있었다. 1885년 재조선 러시아 대리공사 겸 총영사로 부임한 베베르가 조선 정부로부터 경희궁 함춘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본국으로 보낸 전문에는 "출입구는 좁고 진흙 샛길이 그 언덕을 두루 감고 있어 대궐과 외아문(外衙門)으로 가는 북쪽 대로와 연결된다"고 적혀있다(정우진 등 2022, 31-32). 이 전문에 언급된 대궐과 외아문은 경희궁과 개양문을 말하며, 출입구는 함춘원의 원문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56) "경모궁은 동부 숭교방에 있다. 영종 40년에 처음으로 북부 순화방에 세웠으며, 처음 이름은 사도묘였는데 곧바로 수은전으로 고쳤다. 정종 초년에 이곳으로 옮겨 세우고 지금 이름으로 고쳐서 궁으로 승격하고 어필로 현판을 썼다. 장헌세자를 향사하는데, 영종이 어필로 신주를 썼다. 정종·순조·익종의 어용을 망묘루(望廟樓)에 봉안하였다. 궁 서쪽의 일첨문과 월근문 두 문이 유첨문과 유근문 두문과 서로 통한다." (『동국여지비고』 제1권 경도)

57) 경모궁 자리에 의과대학이 건립되기 전부터 경모궁은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었다. 1899년 경모궁은 봉안된 신위를 종묘에 부제(祔祭)하면서 경모전(景慕殿)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같은 해에 영희전(永禧殿)의 어진을 경모전에 이안하여 영희전으로 고쳐 불렀다. 이후 봉안된 다섯 어진조차 선희궁으로 옮겨감에 따라 경모궁은 장헌세자를 비롯한 열성조를 기념하는 장소성이 상실되었고, 1907년 향사이정(享祀釐正)에 관한 칙령으로 폐지되기에 이른다.

참고문헌

景慕宮儀軌(奎13632)

宮闕志(K2-4362)

東國輿地備攷(古4790-10)

三國志 魏書 卷3 明帝記

承政院日記

植木節目[植木實總(奎9953)

御製宮闕志(K2-4363)

在澗集(한46-가132)

朝鮮王朝實錄

漢京識略(가람古915.11-Y9h)

국가기록원, “문화재관리국 옛 비원 건물 사진,” DET 0054527.

김원모, 1964, “함춘원고,” 鄕土서울 22, 47-72.

문화재청, 2006, 사진으로 보는 경복궁, 문화재청.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 2006,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박종효, 2002, 러시아 國立文書保管所 所藏 韓國 關聯 文書 要約集, 한국국제교류재단.

서울역사박물관, 2016, 옛 서울 지도,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편찬원, 2019, 국역 경복궁영건일기2, 서울역사편찬원.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7, 서울六百年史 文化史 蹟篇, 서울특별시.

오준영, 2019, 조선시대 궁궐 외원(外苑)의 조영과 변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선, 2006, 한국 전통 조경 식재: 우리와 함께 살아온 나무와 꽃, 수류산방중심.

이숭녕, 1985,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 서울대학교출판부.

정우진·홍현도·소현수, 2022, “경희궁 별원(別苑) 함춘원의 실지(實地) 경역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40(1), 26-42. https://doi.org/10.14700/KITLA.2022.40.1.026

지그프리크겐테 저, 권영경 역, 2007. 독일인 겐테가 본 신선한 나라 조선, 1901, 책과함께(Siegfried G., 1905, *Korea: Reiseschilderungen*, Berlin: Allgemeiner Verein für Deutsche Literatur).

카르네프 저, Irguebaev, A.·김정화 역, 2003, 내가 본 조선, 조선인: 러시아 장교 조선 여행기. 가야넷(Tiagai, G.D., 1958, *Po Koree: Puteshestviia 1885-1896 gg*, Moscow: Izdatel'stvo vostochnoi literatury Publ).

한국전통조경학회, 2016, 최신 동양조경문화사, 도서출판 대가.

허영환, 1994, 定都 600年 서울地圖, 범우사.

홍순민, 2017, 홍순민의 한양읽기 궁궐(하), 눌와.

大韓每日申報, 1908년 7월 21일, 잡보, “여젼건츅.”

大韓每日申報, 1909년 2월 4일, 잡보, “奪田被招.”

大韓每日申報, 1910년 4월 6일, 잡보, “內田竟敗.”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 아카이브(https://www.gogung.go.kr/royalCultureBookIllust.do, 2020년 10월 10일 검색)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https://www.nl.go.kr/newspaper, 2021년 3월 4일 검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https://www.nl.go.kr, 2020년 10월 13일 검색)

미국의회도서관(https://www.loc.gov, 2021년 4월 19일 검색)

서울대학교 규장학한국학연구소 홈페이지(http://e-kyujanggak.snu.ac.kr, 2020년 9월 27일 검색)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https://museum.seoul.go.kr, 2020년 11월 3일 검색)

위스콘신대학교 밀워키캠퍼스 도서관 디지털 콜렉션(https://collections.lib.uwm.edu, 2021년 2월 11일 검색)

쿤스트카메라 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kunstkamera.ru, 2021년 2월 18일 검색)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2020년 8월 7일 검색

교신: *소현수, (02504)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전자메일: hsso@uos.ac.kr. 전화: 02-6490-2848.*

Correspondence: *Hyun-Su So,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163 Seoulsiripdae-ro, Dongdaemun-Gu, Seoul 02504, Korea. e-mail: hsso@uos.ac.kr. phone: +82-2-6490-2848.*

투고일 2024. 3. 12.
수정일 2024. 4. 13.
채택일 2024. 4. 18.